



「홍성군 마을축제 운영현황 및 본교와의 협력 방안 연구(마을축제 기록집)」

2025. 12.



- 목 차 -

제1장 사업개요	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1) 사업의 배경	2
2) 사업의 목적	2
2. 사업의 범위 및 방법	3
1) 사업의 범위	3
2) 사업의 방법	4
제2장 홍성군 마을축제 운영 현황(개최순서 순)	7
1. 홍성군 마을축제 개요	8
1) 홍성군 마을축제의 배경	8
2) 홍성형 품앗이 마을축제	10
2. 결성면 원천마을회 [원천마을 제12회 조롱박축제]	12
1) 마을 소개	12
2) 축제 소개	12
3) 후기 및 보도자료	14
3.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	16
1) 마을 소개	16
2) 축제 소개	16
3) 후기 및 보도자료	18
4. 홍성환경농업마을 [지구를 지키는 농부-발자국 소리 축제]	19
1) 마을 소개	19
2) 축제 소개	20
3) 후기 및 보도자료	22

5. 오서산 상담마을 [제3회 오서산상담마을 콩 두부 축제]	23
1) 마을 소개	23
2) 축제 소개	23
3) 후기 및 보도자료	25
6. 꽃무릇마을회 [제5회 꽃무릇축제]	26
1) 마을 소개	26
2) 축제 소개	27
3) 후기 및 보도자료	28
7. 홍성읍 오관 2리 경노당 [제4회 홍고통 페스티벌]	29
1) 마을 소개	29
2) 축제 소개	30
3) 후기 및 보도자료	31
8. 대천마을회 [은하봉 들돌축제]	32
1) 마을 소개	32
2) 축제 소개	33
3) 후기 및 보도자료	34
9. 원촌마을회 [원촌마을 어울림 한마당]	35
1) 마을 소개	35
2) 축제 소개	36
3) 후기 및 보도자료	38
10. 거북이마당놀이보존회 [구항 거북이축제]	39
1) 마을 소개	39
2) 축제 소개	40
3) 후기 및 보도자료	41
11. 거북이마당놀이보존회 [수선화 축제]	42
1) 마을 소개	42
2) 축제 소개	43

3) 후기 및 보도자료	44
12. 이더러문화보존회 [제11회 이더러우물축제]	45
1) 마을 소개	45
2) 축제 소개	46
3) 후기 및 보도자료	47
13. 홍북읍주민자치지역발전계획단 [마한시대 사람들 축제 재현-석택리의 비밀]	48
1) 마을 소개	48
2) 축제 소개	49
3) 후기 및 보도자료	50
14. 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 [놀궁리 해상공원 축제]	51
1) 마을 소개	51
2) 축제 소개	52
3) 후기 및 보도자료	54
15. 결성면 마을학교 운영위원회 [제2회 꽃보다 농부축제]	54
1) 마을 소개	54
2) 축제 소개	55
3) 후기 및 보도자료	56
제3장 마을축제 기획자 대상 인터뷰	58
1. 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FGI)	59
1) 조사설계	59
2) 분석결과	61
3) 종합분석	110
제4장 본교와의 협력 방안	116
1. 비전 및 목표	117

2. 전략 및 추진과제	118
3. 차년도 본교와의 협력방안	119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배경

- 홍성군 내에는 오랜 역사와 생활문화에 기반한 다양한 마을축제가 주민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마을축제는 운영 주체의 고령화, 기획 인력 부족, 축제 운영 경험의 축적 및 기록 부재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속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마을축제의 기획 과정, 운영 방식, 주민 참여 구조, 시행착오와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축제 운영 노하우가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일회성 행사로 소멸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마을축제의 질적 고도화와 세대 간 전승, 그리고 지역 간 공유·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지역대학은 교육·연구·지역봉사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자원의 기록과 분석, 청년 인력의 참여, 전문적 기획 역량 제공 등을 통해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주체임. 이에 홍성군 마을축제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본교와 마을 간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홍성군 내 주요 마을축제의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축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 운영 구조, 성과와 한계를 기록집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개별 마을축제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축제 운영 경험이 지역의 공동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연구 역량과 마을축제 현장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기획, 기록,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관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궁극적으로는 본 사업을 통해 홍성군 마을축제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호 성장

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의 범위 및 방법

1) 사업의 범위

(1) 대상적 범위

- 홍성군 내 13개 마을축제를 중심으로 한 마을축제 생태계

(2) 시간적 범위

- 2025년 7월 ~ 2025년 12월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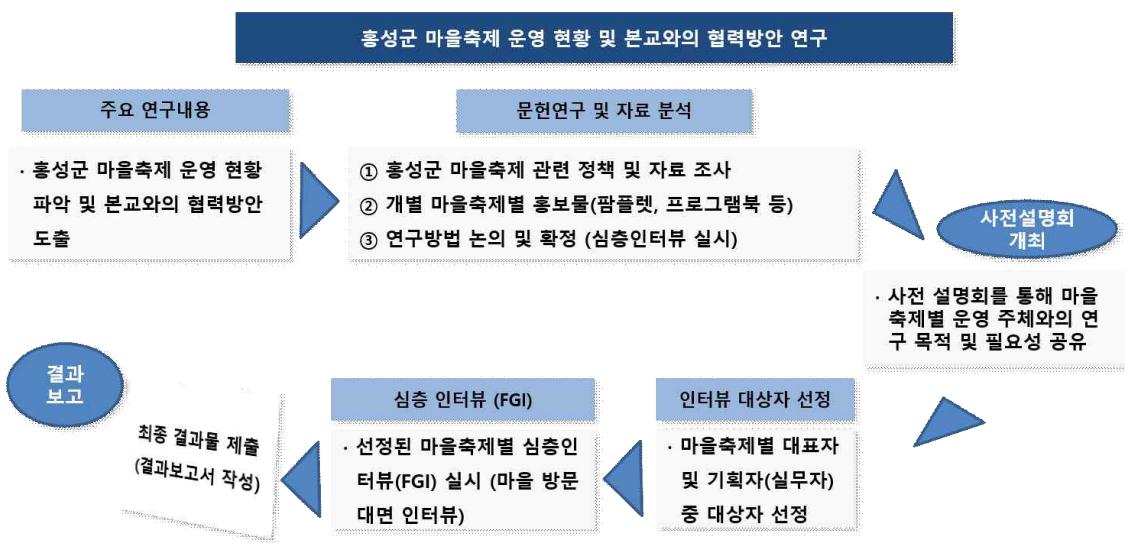
(3)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홍성군 내 마을축제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분석하고, 마을축제 대표자 및 기획자(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문서 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마을축제의 제반 사항을 분석하였음. 이를 토대로 대학과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둠.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아래와 같음
- **1. 홍성군 마을축제 현황 조사 :** 홍성군 내에서 주민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마을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개요, 개최 배경, 운영 주체, 연혁 등을 조사함. 축제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맥락과 마을의 역사·생활문화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축제의 기본 성격을 파악함
- **2. 마을축제 운영 구조 및 실행 과정 분석 :** 각 마을축제의 기획 및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조직 구성, 역할 분담, 재원 조달 방식, 프로그램 구성, 홍보 및 참여 방식 등을 분석함. 특히 축제 준비부터 실행, 사후 정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운영 방식과 현장 대응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축제 운영의 실제적 특성을 도출함
- **3. 주민 참여 방식 및 공동체적 의미 분석 :**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할, 세

대별 참여 양상, 자발성 및 지속성 등을 분석하고, 축제가 마을 공동체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함. 이를 통해 마을축제가 공동체 결속, 세대 간 교류, 지역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명함

- **4. 운영 성과 및 한계 요인 도출 :** 마을축제 운영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 성과와 함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어려움과 한계 요인을 정리함. 인력 구조, 기획 역량, 재정 여건, 외부 협력 경험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도출함
- **5. 마을축제 기록 및 아카이빙 체계 정리 :** 축제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사진, 영상, 인터뷰 자료 등을 정리·분석하여 마을축제 기록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함.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활용 가능한 기록집 구성 방향과 기록·아카이빙의 기본 틀을 제시함
- **6. 본교와 마을축제 간 협력 사례 및 가능성 분석 :** 기존에 이루어진 대학과 마을축제 간 협력 사례를 검토하고, 본교의 교육·연구·현장실습 역량을 기반으로 한 협력 가능 분야를 분석함.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기획, 기록, 콘텐츠 제작, 교육 연계 등 실질적 협력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 구조를 탐색함
- **7. 대학-마을 연계 협력 방안 도출 :**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마을축제의 특성과 운영 단계에 적합한 본교와의 협력 모델을 제안함. 단기적 행사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협력 구조를 설정하고, 향후 확장 가능한 대학-지역 연계 문화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함

2) 사업의 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현황조사

- 홍성군 마을축제 관련 정책 및 마을별 축제 운영 현황을 수록한 선행 자료집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

(2) 심층 인터뷰 (FGI)

- 마을축제별 대표자 및 기획자(실무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FGI) 실시

① 심층 인터뷰 (FGI)

- ㉠ 인터뷰 대상 : 마을축제별 대표자 및 기획자(실무자) 중 1~2명
- ㉡ 인터뷰 방법 : 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시행
- ㉢ 인터뷰 기간 : 총 1회 실시
- ㉣ 인터뷰 장소 : 마을방문을 통한 대면 인터뷰 실시
- ㉤ 인터뷰 내용
 - 마을축제별 운영 현황 및 조직, 예산, 문제사항 등 축제 현안
 - 마을축제의 시작 배경 및 대표 콘텐츠 소개, 콘텐츠의 변화 계기 등

- 본교와의 협력방안 등 (청년인력의 참여, 예산의 불안정석, 콘텐츠의 주재 등)

③ 내부회의

- 회의내용 : 연구진이 설정한 연구목적 및 방향, 조사설계, 설문항목의 적절성 논의

(3) 본교와의 마을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제시

- 홍성군 13개 마을축제의 운영 현황을 토대로 본교와의 협력방안 제시

제2장 홍성군 마을축제 운영 현황

1. 홍성군 마을축제 개요

1) 홍성군 마을축제의 배경

(1) 개요

- 1978년대 말까지만 해도 315건에 불과하던 지역축제가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계기로 707개의 지역축제가 새로이 등장하였으며 각 지역들은 앞 다투어 축제를 추진하거나 새롭게 개발하였음. 그 이유는 지역의 문화 고유성을 바탕으로 홍보하고 관광산업의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임
- 지역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했고, 여기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광축제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음. 관광축제 육성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등장하게 된 것임
- 즉, 사회적 풍요와 더불어 증가하게 된 관광 수요의 증가와 국가 정책이 축제로 만나면서 여러 축제 중에서도 지역축제를 기획해야 한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임
- 그 후로 지역 축제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한국관광공사 자료정보에 따르면 2019년 개최하는 지역축제 수는 1,800개를 넘어섰으며, 예산규모는 1조 37억, 전체 예산 대비 0.52%로 최근 5년 대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방정부의 축제에 대한 시각이 지역의 홍보와 경제적 효과 목적의 축제 개발과 국가지정 축제에 대한 개발이 마을중심의 전통적 마을축제는 소외되고 쇠퇴하게 되었음
- 2008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의 마을 또는 마을 권역 단위의 소규모 농촌축제를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지역사회의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2008년 19개소의 축제를 시작으로 2009년 17, 2010년 25, 2011년 27, 2012년 33, 2013년 38, 2014년 41, 2015년 42, 2016년 54, 2017년 57, 2018년 60, 2019년 65개소의 소규모 축제를 농촌축제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음
- 이처럼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주민화합의 목적과 더불어 지역문화의 전통 계승 발전과 마을자원의 활용을 바탕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축제를 홍성군 마을에 적용하고자 함

- 축제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음.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세기 동안 다양한 문명과 문화의 충돌 속에 수많은 변천을 겪으며 인류의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음
- 축제는 한 사회의 문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요체라 할 수 있음. 저마다 개인은 태어나면서 축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 사회와 문화를 몸으로 익혀 그 성원이 됨
- 문화인류학자들이 한 사회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그 사회의 축제 현상에 주목해왔다는 사실은 축제가 갖는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사회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확인하면서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것임. 이렇듯 축제는, '문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해되어 왔음
-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 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기회며 삶을 근본적으로 긍정하게 되고 일상적인 생활질서로 중압으로 피폐해진 잠재의식에 생명과 활력소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축제의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해볼 수 있음
-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여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 즉,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그러한 현대인들의 문화적 욕망을 채워줄 대안의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임
- 농촌축제나 마을축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지만 농림축산부와 농어촌공사의 농촌축제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과 마을축제관련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마을축제를 설계하고자 함
- 윤상현•이한성(2014)은 현대적 의미의 농촌 마을축제는 '농촌지역의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화합, 마을 홍보 및 마을 소득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축제'라고 할 수 있음
- 공간적 범위로는 1개의 마을이라 할 수 있지만 개념을 확장하면 2~5개의 자연마을이 연계되어 하나의 영농권 및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공간(예를 들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 공간)도 마을축제 공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축제의 소재로는 마을 내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요소가 활용되고, 축제 개최 시기는 특정한 날짜 혹은 기간을 가지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가치성)을 가지고 개최되어야 한다고 했음
- 이를 바탕으로 홍성형 품앗이 마을축제 모델을 만들었음

2) 홍성형 품앗이 마을축제

- 농촌 경관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닌, 그저 볼거리이기만 한 자연경관이 아님.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고 수고한 노고와 지혜가 땅에 스며들어 형성된 문화경관임. 자연과 시간과 인간이 어울려 오랜 기간 형성된 인문경관임. 따라서 농촌마을의 경관은 그 동네 사람들 삶의 무늬이며, 지역사회의 얼굴임

(1) 슬로건

- “함께 만드는 마을 축제” 공동체의 삶을 담다

(2) 목적

-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에서 주문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화합, 마을 홍보 및 마을 소득 창출 등을 도모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형성

(3) 목표

- 마을공동체 활성화
- 협동하는 일상 문화
- 누구나 만드는 유기적 생산 문화
-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통한 교류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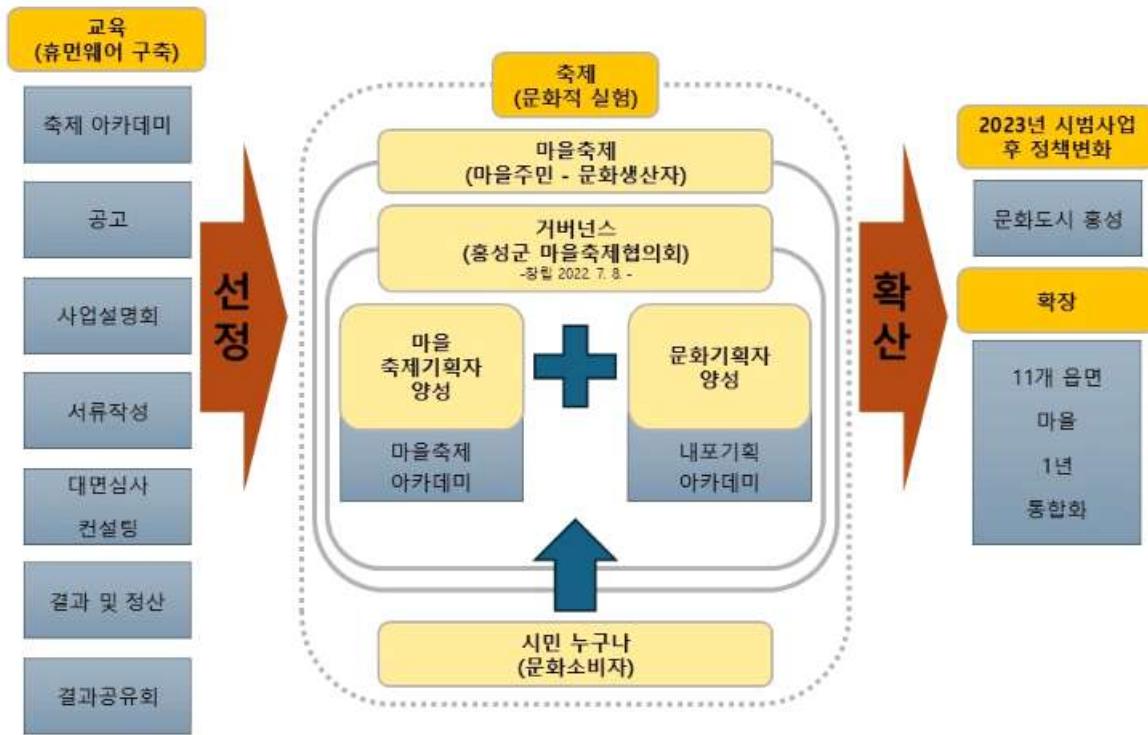
(4) 사업내용

- 다양한 문화를 시민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자원을 통한 축제 개최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확산
-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5) 운영 모델

- 휴먼웨어 구축(교육)
- 유기적 연계(거버넌스)

- 유기적 생산문화(공동체 활성화, 문화생산자)
- 지속가능한 운영체계(정책화)



홍성형 품앗이 마을축제 운영 모델 : 모영선(2021. 6 이후 수정사용)

2. 결성면 원천마을회 [원천마을 제12회 조롱박축제]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원천마을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에 위치한 농촌 마을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마을의 핵심 발전 전략으로 설정하여 실천해 온 선도적 사례 마을임. 단순한 에너지 시설 구축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 전반에 에너지 전환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공동체 중심의 실천을 지속해 왔음
- 특히 원천마을은 2014년부터 마을자치 기반의 '조롱박축제'를 매년 이어오며, 마을 고유의 농산물과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을 축제 콘텐츠로 발전시켜 왔음.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어, 환경·재생·순환이라는 마을의 철학을 주민과 외부 방문객이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마을에서 재배·수확한 조롱박을 활용한 공예 활동과 전시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와 순환경제의 가치를 체험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축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② 마을리더

- 이장 송영수, 반장 박달순, 반장 송천균, 노인회장 김재연, 부녀회장 김영애, 청년 회장 황선돈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12회 원천마을 조롱박축제
- 일시 : 2025년 8월 2일(토) 10:00 ~ 14:30
- 장소 : 원천마을 마을회관 및 인근 마을 공간
- 방문자 수 : 약 250명

- 주민 참여자 수 : 총 34명 (노인회 10명, 부녀회 12명, 청년회 12명)
- 제11회 조롱박축제는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참여하는 마을자치형 축제로, 노인회·부녀회·청년회 등 마을 조직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음. 축제 공간 역시 별도의 외부 행사장이 아닌 마을회관과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방문객이 마을의 일상과 공동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추진 배경

- 원천마을은 조롱박축제를 단순한 농산물 홍보 행사나 일회성 마을잔치가 아닌, 마을의 중장기 비전과 연계된 실천형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지속적인 고민을 이어왔음
- 특히 마을은 에너지 자립을 핵심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RE100 시범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되면서, 2024년을 기점으로 마을회관 패시브 하우스 전환, 마을기업 자가태양광 설비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하게 되었음
- 이러한 변화는 시설과 제도 차원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인식과 생활 방식 속에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문화적 계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음. 이에 따라, 기존에 이어오던 조롱박축제를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가치를 주민과 외부 방문객이 함께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축제로 재구성하게 되었음

(3) 추진 목적

- 기존 조롱박축제를 에너지 자립마을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아낸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함
-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실천을 주민 생활과 연결하여, 주민 주도의 참여와 공감을 확대하고자 함
- 마을 구성원 각 세대가 역할을 나누어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협력과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자 함
- 외부 방문객에게 원천마을의 가치와 실천 사례를 소개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 모델을 공유하고자 함

(4) 기획 의도

- 본 축제는 친환경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체험과 참여 중심의 축제 콘텐츠로 구체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이를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운영 원칙을 설정하고, 축제 전반에 걸쳐 생활 속 실천 사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음
- 또한 조롱박을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공예·전시·체험의 매개로 활용함으로써 재사용·재활용·순환경제의 가치를 시각적·체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음. 조롱박 공예는 마을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의 기존 문화 활동이 축제 콘텐츠로 확장되는 구조를 형성하였음
- 아울러 마을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활용한 요리와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먹거리 역시 마을 자원 순환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소규모 마을 잔치 형식을 통해 방문객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동체적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제11회 원천마을 조롱박축제에 참여한 주민과 관계자들은 본 축제가 단순한 마을 행사를 넘어,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실천이라는 마을의 비전을 주민 스스로 체감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과 같은 사회적 의제가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축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 조롱박 공예 체험, 일회용품 없는 축제 운영,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공동 요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친숙한 경험으로 전환되었다는 평가가 다수 제시되었음
- 또한 조롱박 공예 전시와 체험을 계기로, 그동안 일부 동아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창작 활동에 대해 다른 주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주민 스스로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아울러 노인회·부녀회·청년회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협력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축제 준비와 운영 전반이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역시 주요 성과로 언급되었음

(2) 보도자료

「에너지 자립마을 ‘결성면 원천마을’, 제11회 조롱박축제 성료」

- 결성면 원천마을에서 개최된 제11회 조롱박축제가 2024년 8월 3일, 마을회관 일원에서 주민과 방문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음. 이번 축제는 원천마을이 그동안 추진해 온 탄소중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성과를 주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풀어낸 사례로 주목을 받았음
- 보도자료에서는 원천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RE100 시범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되어 추진한 마을회관 패시브하우스 전환과 자가태양광 설비 구축 등의 성과를 소개하며, 이를 단순한 시설 성과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인식과 생활문화로 확산시키고자 축제를 기획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보도하였음
-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축제 운영 방식, 마을에서 수확한 조롱박을 활용한 공예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공동 요리와 나눔 행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형 마을축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음
- 특히 이번 조롱박축제는 노인회·부녀회·청년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기획부터 운영까지 함께한 마을자치형 축제로, 외부 인력 의존도가 낮고 주민 참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마을 공동체 회복과 세대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음
- 보도는 마지막으로 원천마을 조롱박축제가 향후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과를 공유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타 지역 농촌 마을에도 적용 가능한 확장성과 참고 가치가 높은 사례임을 강조하였음

3.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상황마을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로, 예로부터 농사가 잘 되고 바다가 인접해 있어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한 생활 여건이 우수한 마을로 알려져 왔음. 이러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주민 간 유대와 공동체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 귀농·귀촌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마을로 자리매김하였음
- 특히 상황마을은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어우러지며 공동체 화합을 이루고 있는 사례로, 인근 마을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음. 마을회관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농번기를 마친 어르신들이 농한기에 함께 점심을 나누고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 체조와 여가 활동을 즐기는 마을 공동체의 일상적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상적 교류와 공동체 활동은 마을 축제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상황마을이 지닌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지역 안팎에 확산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음

② 마을리더

- 이장 : 임제순, 노인회장 : 김칠섭, 부녀회장 : 안진숙, 청년회장 : 엄용기, 느리실마을위원장 : 이형자, 동산마을회 총무 : 이준기, 동산마을회 감사 : 김진숙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3회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
- 일시 : 2025년 8월 20일(수) 14:00 ~ 17:00
- 장소 : 홍성군 서부면 상황마을 회관 일원

- 방문자 수 : 약 200명
- 주민 참여자 수 : 총 120명 (노인회 42명, 부녀회 65명, 청년회 13명)
- 제3회 배롱나무축제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운영한 주민참여형 마을축제로, 전체 방문객 중 주민 참여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공동체 중심 축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음. 특히 노인회와 부녀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세대 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임

(2) 추진 배경

- 상황마을은 2010년부터 마을 가로수길을 배롱나무로 조성해 왔으며, 여름철이면 마을 전반에 배롱나무 꽃이 만개하는 경관을 형성해 왔음. 배롱나무 가로수길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와 관심 속에서 마을의 상징적 경관 자원으로 자리 잡았음
- 또한 상황마을은 2021년 농협중앙회 주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이미지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2023년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심리적·물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주민을 위로하고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이에 따라 배롱나무 가로수길이라는 마을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과 귀농·귀촌인, 출향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축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3) 추진 목적

- 배롱나무축제를 통해 마을 주민, 출향인, 귀농·귀촌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조성
- 산불 피해 이후 위축된 마을 분위기를 회복하고, 주민 상호 간 위로와 격려의 기회를 마련
- 마을의 대표 경관 자원인 배롱나무 가로수길을 활용하여, 상황마을의 정체성과 긍정적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확산

(4) 기획 의도

- 본 축제는 산불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에게 일상의 활력과 공동체적 위로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기획되었음. 배롱나무가 만개한 가로수길을 배경으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소규모 마을잔치 형식으로 운영하였음
- 또한 외부 관광객 중심의 대규모 축제가 아닌,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지향함으로써, 상황마을 고유의 정서와 공동체 문화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배롱나무축제가 단발성 행사가 아닌, 마을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음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제2회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은, 본 축제가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어 마을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였음
- 특히 배롱나무 가로수길 조성의 시작을 이끌었던 김칠섭 노인회장의 노력과, 제1회 배롱나무축제를 기획하여 축제의 토대를 마련한 전 김찬 이장의 현신이 다시금 조명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마을 주민 모두가 축제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음
- 아울러 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주민 개개인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 있는 마을, 상황마을”이라는 자부심을 공유하는 목소리가 다수 제시되었음

(2) 보도자료

「홍성군 서부면 상황마을, 제3회 배롱나무축제 성료」

- 흥성군 서부면 상황마을에서 열린 제3회 배롱나무축제가 2025년 8월 20일, 마을회관 일원에서 주민과 방문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음. 이번 축제는 배롱나무 가로수길이라는 마을의 대표 경관 자원을 중심으로, 주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기획된 주민 주도형 마을축제임
- 보도자료에서는 상황마을이 2010년부터 배롱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해 온 과정과, 2021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동상 수상 등 지속적인 마을 환경 관리 성과를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배롱나무축제가 마을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특히 산불 피해 이후 주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이 많은 마을 특성을 반영해 공동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농촌 마을축제가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정서적 기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였음

4. 흥성환경농업마을 [지구를 지키는 농부—발자국 소리 축제]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흥성환경농업마을은 충청남도 흥성군 흥동면 문당리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부들이 뜻을 모아 형성한 공동체 마을임. 이 마을은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의미를 사회에 알리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흥성환경농업마을은 마을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10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고민하는 철학적 기반을 갖춘 마을로 평가받고 있음. 특히 자연과 공존하는 농업 방식, 공동체 중심의 삶, 교육과 실천이 결합된 마을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본 마을은 유기농 쌀농사의 혁신적 방식으로 알려진 오리농법을 국내에서 최

초로 실천한 지역으로, 한국 친환경농업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재는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축제 운영을 통해 농업의 생산적 기능을 넘어, 교육적·문화적 가치가 살아 있는 농촌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② 마을리더

- 이장 : 이선재, 노인회장 : 이정영, 부녀회장 : 황경숙, 청년회장 : 염동필,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 주형로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지구를 지키는 농부 – 2025 발자국 소리 축제
- 일시 : 2025년 10월 27일(일) 14:00 ~ 19:00
- 장소 : 홍성군 홍동면 문당길 141 일대
- 방문자 수 : 약 100명
- 주민 참여자 수 : 총 25명 (노인회 10명, 부녀회 7명, 청년회 8명)
- '발자국 소리 축제'는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는 계절 순환형 농촌 체험·교육 축제로, 농사의 과정과 농촌의 사계절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대규모 관람형 축제가 아닌, 참여자 중심의 소규모 축제로 기획되어 깊이 있는 체험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였음

(2) 추진 배경

- 발자국 소리 축제는 손모내기, 개구리 소리, 맨발로 농로를 걷는 경험 등 과거 농촌의 일상적 풍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기계화·도시화로 인해 농업과 자연의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 농촌 고유의 생활문화와 감각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또한 본 축제는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사람과 자연의 만남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몸으로 느끼고, 농업이 지닌 근본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음. 이를 통해 유기농 특구로서의 흥성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을 매개로 한 새로운 희망과 관계 맺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3) 추진 목적

- 발자국 소리 축제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농촌에서의 쉼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
- 봄의 손모내기, 여름의 논 생태 체험, 가을의 추수 체험 등 농촌의 사계절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농업의 시간성과 가치에 대해 이해 증진
- 새벽 발자국 체험(동틀 무렵 농로 걷기)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제공
- 점차 사라져가는 농촌 문화와 전통적 농업 방식을 기록하고 체험을 통해 후대에 계승·발전시키고자 함

(4) 기획 의도

- 본 축제는 농촌과 자연을 '관람'하는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참여하는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기획되었음
- 이를 위해 (1) 논생물 체험 : 논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며 생태계의 순환 구조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2) 발자국 프린팅 : 논둑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며 자연과 인간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활동, (3) 농악 공연 : 농촌 공동체의 흥과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4) 논둑 걷기 : 농촌 풍경 속을 천천히 걸으며 사유와 휴식을 경험하는 시간, (5) 자기 식기 준비 및 1인 1가지 음식 나눔 : 환경 보호와 공동체 나눔의 가치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 이를 통해 발자국 소리 축제는 친환경·치유·교육·공동체 가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철학 있는 농촌형 문화축제를 지향하였음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참여자들은 발자국 소리 축제가 “작물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에서 착안한 축제 취지처럼, 농업과 사람, 자연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음
- 2025년에는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6월에 농부의 수고를 나누고, 10월 가을에는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축제가 진행되었음. 6월 행사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 야외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었으나, 실내에서 진행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오히려 농업과 생태의 의미를 차분히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특히 식당 앞에 설치된 생물다양성 체험 부스는 어린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농촌 생태 교육의 장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음. 참여자들은 향후에도 발자국 소리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나타냈음

(2) 보도자료

「홍성 유기농 특구에서 만나는 치유형 농촌축제 ‘발자국 소리 축제’」

- 보도자료에서는 홍성환경농업마을이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철학을 축제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였음. 특히 손모내기 체험, 논 생태 관찰, 발자국 체험 등 감각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을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닌 교육·치유·문화의 장으로 확장한 사례로 소개하였음
- 또한 발자국 소리 축제가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참여형 농촌문화축제 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5. 오서산 상담마을 [제3회 오서산상담마을 콩 두부 축제]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오서산상담마을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오서산 아래 첫 번째 산촌생태 마을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특히 가을철 억새로 유명한 오서 산과, 산림청이 지정한 국가숲길인 내포문화숲길 홍성 구간의 거점마을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산촌 관광·체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마을은 오서산 등산로 초입에 자리하고 있어 등산객과 관광객의 유입이 활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마을 부녀회가 10년 이상 직접 운영해 온 '오서산 억새풀 식당'이 있으며, 이는 마을 공동체 수익사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 오서산상담마을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콩을 활용한 두부 만들기를 중심으로, 농업·음식·체험·관광이 결합된 마을 모델을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축제로 확장한 것이 '오서산상담마을 콩 두부 축제'임. 본 축제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공동체 중심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② 마을리더

- 이장 : 박원순, 노인회장 : 김기봉, 부녀회장 : 정명숙, 법인대표 : 서동옥, 사무장 : 송점순, 운영매니저 : 김태영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3회 오서산상담마을 콩 두부 축제
-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10:00 ~ 14:00
- 장소 : 오서산 산촌마을센터 일원

- 방문자 수 : 약 150명
- 주민 참여자 수 : 총 70명 (노인회 20명, 부녀회 30명, 마을법인 20명 등)
- 제2회 콩 두부 축제는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기획·운영된 평일형 마을축제로,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특징임. 마을센터를 중심으로 축제 동선이 구성되어, 방문객이 마을 공간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음

(2) 추진 배경

- 충남 서해안의 명산 오서산은 가을철 억새 경관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관광 자원이며, 오서산상담마을은 오서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음
- 본 마을은 홍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으뜸촌으로 선정되어 사무장이 상주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 지정 산촌생태마을로서 운영 매니저 지원과 함께 숙박시설(오서산 펜션)을 갖추고 있음
- 또한 2014년부터 마을 공동체 수의사업으로 운영 중인 '오서산 억새풀 식당'은 마을 및 지역산 콩을 활용해 두부를 직접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밥상」, 「소소공방」 등 방송에 소개되며 외부 방문객 유입의 주요 계기가 되었음
- 이와 같은 마을 자산과 성과를 축제 형태로 집약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알리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 모델을 구축하고자 콩 두부 축제를 추진하게 되었음

(3) 추진 목적

- 오서산과 마을이 보유한 자연·생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마을 대표 축제를 조성하고자 함
- 마을 주민 모두가 기획·운영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의 축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축제의 기획 및 운영 경험을 단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마을 주민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자 함
- 마을식당, 체험 프로그램, 농산물 판매 등 마을의 기존 사업과 축제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자립적 운영 기반을 도모하고자 함
- 축제를 매개로 한 체계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마을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4) 기획 의도

- 본 축제는 '오서산 콩 두부'라는 마을의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음식·체험·공연·나눔이 결합된 소규모 마을축제로 기획되었다. 축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개개인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마을 구성원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음
- 또한 평일 개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을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동선을 설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어르신 배려를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마을 공동체의 가치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축제'를 구현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기도 함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제3회 오서산상담마을 콩 두부 축제는 마을 주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준비·운영 된 축제로, 참여자들은 축제 전반에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특히 제11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은상 수상 기념대회에서 선보였던 퍼포먼스 공연과 마을 합창을 축제 현장에서 다시 선보이며, 마을의 성과와 자부심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음. 점심 식사는 사전에 도시락 형태로 준비하여, 부녀회 구성원들도 축제 현장에서 함께 어울리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기상 여건으로 일부 부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방문객이 끝까지 함께

며 축제의 의미를 공유하였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마을 운영진과 후원 기관이 준비한 다양한 선물을 나누며 화합의 분위기를 더했음. 참여자들은 내년 축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음

(2) 보도자료

「어서 와유~ 오서산 상담마을로」

- 보도자료에서는 오서산상담마을이 산촌생태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로서 축적해 온 운영 경험과, '오서산 억새풀 식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수익사업의 성과를 소개하였음. 특히 마을 콩을 활용한 두부 만들기와 이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먹거리 축제의 모범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또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운영하고, 어르신과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축제 운영 방식이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오서산 관광과 연계된 대표 마을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조명하였음

6. 꽃무릇마을회 [제5회 꽃무릇축제]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꽃무릇마을은 다랑이 논과 계절마다 변화하는 농촌 경관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농촌마을로, 특히 가을철 논두렁을 따라 군락을 이루는 꽃무릇이 마을의 상징적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자연경관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축제를 매개로 마을의 정체성을 외부에 알리는 한편 주민 스스로 화합하며 지속적으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고 있음
- 꽃무릇축제는 마을이 주도적으로 형성한 자연·생활 자원을 기반으로, 흥성군민과 방

문객에게 '꽃무릇 마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축제임

② 마을리더

- 이장 : 윤근중, 노인회장 : 윤석길, 부녀회장 : 이영숙, 추진위원장 : 김성호, 청년회장 : 이호정, 대표 : 김현수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5회 꽃무릇 축제
- 일시 : 2025. 10. 3.(금) 11:00 ~ 18:00
- 장소 : 내포로 251번길 187 일원(다랑이 논 및 마을 주요 거점 공간)
- 방문자 수 : 약 300명
- 주민참여자 수 : 99명 (노인회 50명, 부녀회 21명, 청년회 28명 등)
- 본 축제는 꽃무릇마을의 대표 자연자원인 다랑이 논과 꽃무릇 군락을 중심으로 기획된 주민 주도형 마을축제로, 자연 경관 감상과 마을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보행 중심 축제로 운영되었음. 마을 주민이 직접 축제의 기획·준비·운영 전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노인회·부녀회·청년회 등 마을 조직이 역할을 분담하여 세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운영 구조를 형성하였음

(2) 추진 배경

- 꽃무릇마을은 2016년부터 다랑이 논두렁을 중심으로 꽃무릇을 식재·관리하며, 주민 주도의 경관 조성을 통해 마을 고유의 자연 자원을 축적해 왔음
- 마을 전체 4개 반이 협력하여 꽃무릇 관리와 축제 준비에 참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립적 축제 구조가 형성되었음
- 기존의 농촌 행사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자연경관과 마을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축

제를 통해 마을의 인지도 제고와 공동체 결속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3) 추진 목적

- 다랑이 논과 꽃무릇이 어우러진 마을 경관을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반영된 마을 대표 축제를 조성하고자 함
- 주민 간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마을 가꾸기 활동으로 확장하고자 함
- 마을의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축제를 통해 '꽃무릇 마을'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흥성군민 및 외부 방문객에게 마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함

(4) 기획 의도

- '꽃무릇과 함께하는 여행'을 주제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참여형·체험형 축제를 기획하였음
- 꽃과 다랑이 논이 만들어내는 마을 풍경을 따라 걷고 머무를 수 있도록, 장향원뜰, 쌍우물, 마을쉼터, 바이올린 공방 등 마을 곳곳의 공간과 자원을 축제 동선으로 연계하였음
- 축제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농산물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기후변화로 인해 꽃무릇의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음
- 특히 노인회·부녀회·청년회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마을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

가 되었음

(2) 보도자료

“다랑이 논 따라붉게 물든 가을, 제5회 꽃무릇 축제 성료”

- 꽃무릇마을회는 10월 3일(금) 내포로 251번길 일원에서 「제5회 꽃무릇 축제」를 개최하였음
- 이번 축제는 다랑이 논과 꽃무릇이 어우러진 마을의 자연경관을 주제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공동체 중심의 축제로 마련되었음
- 비록 기후 변화로 인해 꽃무릇 개화 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약 300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아 마을 곳곳을 거닐며 다양한 체험과 농산물 판매 프로그램을 즐겼음
- 꽃무릇마을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마을의 자연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음

7. 홍성읍 오관 2리 경노당 [제4회 홍고통 페스티벌]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오관2리 마을은 과거 홍성고등학교 등굣길이자 홍성터미널이 위치했던 곳으로, 홍성읍 내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발했던 중심 골목이었음. 특히 ‘홍고통’이라 불리던 골목은 학생, 상인,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교차하던 공간으로, 지역민의 기억과 추억이 축적된 장소였음
- 그러나 터미널 이전과 학교 이전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면서 골목의 기능은 쇠퇴하였고, 현재는 고령 인구 중심의 주거 공간으로 변화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고통은 1950년대 이후 홍성읍의 생활사와 도시 변천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로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향수와 공동체 기억이 살아 있는 의미 있

는 공간임

- 흥고통 페스티벌은 이러한 마을의 역사적·정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라져가는 골목의 이야기를 축제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시작된 마을문화 축제임

② 마을리더

- 이장 : 임진빈, 노인회장 : 장석기, 반장 : 오기상, 반장 : 인태풍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4회 흥고통 페스티벌
- 일시 : 2025. 11. 15.(토) 11:00 ~ 15:00
- 장소 : (구) 흥고통 골목 일원
- 방문자 수 : 약 200명
- 주민참여자 수 : 20명 (마을주민 10명, 상인회 10명)
- 흥고통 페스티벌은 쇠퇴한 골목 공간을 무대로, 지역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재구성한 도시형 마을축제임. 단순한 공연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골목 자체를 전시 공간이자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여 방문객이 직접 걷고 참여하며 이야기를 경험하도록 기획되었음
- 특히 마을 주민과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여 골목 미션 수행, 체험 프로그램, 이야기 나눔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과 공동체 문화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였음

(2) 추진 배경

- 흥성을 오관2리는 과거 흥성터미널과 흥성고등학교가 위치하며 유동 인구와 상권이 활발했던 골목 지역으로, '흥고통'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기억이 축적된 공간이었음.

그러나 터미널과 학교 이전 이후 상권이 쇠퇴하고 골목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공간의 정체성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이에 주민들은 흥고통이 지닌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문화자원으로 재조명하고, 마을축제를 통해 골목의 기억을 공유하며 원도심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본 축제를 기획하였음

(3) 추진 목적

- 본 축제는 흥고통 골목을 중심으로 한 방문객 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재생 구역 내 마을축제를 통해 주민과 상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의 문화 활동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 형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4) 기획 의도

- 흥고통 페스티벌은 골목 공간 자체를 무대로 삼아, 흥고통에서 형성된 생활사와 주민의 기억을 이야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데 기획의도를 두었음
- 방문객이 골목을 걷고 체험하며 과거와 현재의 흥고통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하여, 골목의 장소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흥고통 페스티벌이 3회째 이어지며, 흥성군민들 사이에서 흥고통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음. 잊혀 가던 골목이 축제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세대 간 기억을 나누는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됨

(2) 보도자료

「제4회 홍고통 행복마을 페스티벌 15일 개최」

- 본 보도에서는 홍성읍 오관2리 홍고통 골목에서 개최된 제4회 홍고통 행복마을 페스티벌이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형 마을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음을 전하며, 쇠퇴한 원도심 골목을 문화와 이야기로 재해석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음
- 특히 골목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콘텐츠로 구성한 점,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 점, 지역 상권과 연계한 축제 운영 방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음

8. 대천마을회 [은하봉 들돌축제]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대천마을은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에 위치한 농촌 마을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 청년, 중장년, 노년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마을 일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세대 통합형 마을이라는 점이 큰 특징임. 특히 여성 주민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며,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 공동체 활동이 마을 운영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
- 대천마을은 외부에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이나 특산물은 많지 않지만, 주민들은 스스로를 “사람이 자산인 마을”이라 정의함. 주민 개개인의 관계,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가 마을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자부심임. 은하봉 들돌축제는 이러한 대천마을의 공동체 철학과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아 왔음

② 마을리더

- 이장 : 김지세, 노인회장 : 김광운, 부녀회장 : 고은정, 청년회장 : 강순기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11회 은하봉 들돌축제
- 일시 : 2025. 10. 9.(목) 10:00 ~ 16:00
- 장소 : 은하면 행정복지센터 일원
- 방문자 수 : 약 300명
- 주민참여자 수 : 108명 (노인회 28명, 부녀회 20명, 청년회 20명, 일반 주민 40명)

- 은하봉 들돌축제는 대천마을의 옛 풍습과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형 마을축제로,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 축제임. 특히 경쟁과 소비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참여와 응원,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10년간 이어져 오며 대천마을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였음

(2) 추진 배경

-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마을 공동체 활동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관계를 유지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장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 지역축제가 외부 공연이나 일회성 행사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를 인식하고, 마을 주민의 삶과 기억이 축제의 내용이 되는 '생활 기반 축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됨
- 대천마을은 일상 속에서 공동체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이를 외부에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는 상징적 콘텐츠가 부족하였으며, 이에 마을 고유의 전통 놀이인 '들돌'을 중심으로 한 축제 기획이 논의됨
- 주민 스스로 축제를 기획·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통해, 마을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마을사업 및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마을 구성원 각자가 축제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마을 내부의 역할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공동의 책임과 성취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3) 추진 목적

- 마을 주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며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내부의 신뢰와 연대 강화
- 세대별로 흩어져 있던 기억과 경험을 축제라는 장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마을의 역사성과 정체성 재확인
- 주민 스스로 축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통해 마을 자체 역량과 문화 기획 역량을 점진적으로 축적
- 외부 방문객에게 대천마을의 생활 문화와 공동체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여, 마을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대
-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마을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 기반 마련

(4) 기획 의도

- '경쟁'과 '성과' 중심의 축제가 아닌, 함께 참여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과정 자체를 축제의 핵심 가치로 설정
- '둘둘'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대천마을의 노동 문화, 체력, 협동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 프로그램 전반에 주민의 역할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하여, 주민이 곧 축제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획
- 특정 세대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노인회·부녀회·청년회·일반 주민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지향
- 축제를 통해 "대천마을다운 방식"의 문화 향유 모델을 정립하고, 향후 마을 문화 활동의 기준점으로 삼고자 함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은하봉 들돌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마을 주민들이 서로의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 안부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의가 열리고, 역할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 마을 전체에 활기가 더해졌음
- 특히 어르신들은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로 풀어내며 세대 간 소통의 중심이 되었고, 젊은 주민들은 준비와 진행을 맡으며 마을 일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을 키울 수 있었음. 축제를 통해 “우리 마을에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

(2) 보도자료

「은하면 대천마을, 제11회 은하봉 들돌축제 성료」

- 지역 언론에서는 은하봉 들돌축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10년간 이어 온 공동체형 마을축제”로 소개하며, 대천마을의 사례가 농촌 마을축제의 지속 가능성은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하였음. 특히 외부 전문가나 이벤트 중심의 기획이 아닌, 주민 스스로의 생활 문화와 기억을 축제 콘텐츠로 발전시켰다는 점이 주목받았음
- 또한 보도에서는 축제를 통해 세대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마을 내부 결속력이 강화되었으며, 방문객들 역시 상업적 행사와는 다른 따뜻한 분위기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전하고 있음

9. 원촌마을회 [원촌마을 어울림 한마당]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원촌마을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도시형 마을로, 광천 지역 42개 마을 가운데 과거 '구장터'로 기능하며 지역 상권과 생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곳임. 오랜 시간 사람과 물자가 모이던 공간이었으나, 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마을의 활력이 점차 약화되어 왔음
- 그러나 원촌마을은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음. '돛배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약 9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폐교된 광신초등학교에는 장사의 문학관이 조성될 계획으로 문화적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 현재 원촌마을은 194세대, 총 32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90세 이상 고령자도 다수 포함된 생활 밀착형 공동체로서 세대 간 공존과 돌봄의 가치가 중요한 마을임

② 마을리더

- 이장 : 이두영, 개발위원장 : 최광소, 노인회장 : 최현구, 일심회장 : 김춘자, 부녀회장 : 이유순, 청년회장 : 이성우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4회 원촌마을 어울림 한마당
- 일시 : 2025. 10. 11.(토) 10:00 ~ 15:00
- 장소 : 원촌마을 광장
- 방문자 수 : 약 250명
- 주민 참여자 수 : 50명
- 원촌마을 어울림 한마당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축제로,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회복하고 마을의 변화 과정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본 축제는 공연 관람 중심의 행사에서 나아가, 주민 스스로 무대에 서고 참여하는 '마을형 축제'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2) 추진 배경

- 원촌마을은 과거 정월대보름 잔치, 어버이날 효도잔치, 윷놀이 대회 등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전통적인 마을 잔치 문화가 활발히 이어져 왔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이러한 공동체 행사가 중단되며, 주민 간 교류의 기회가 크게 감소하였음
- 이에 2022~2023년 품앗이 마을축제 사업을 계기로 '원촌마을 어울림 한마당'이 재개되었으며, 2024년에는 '꿈을 꾸는 축제'를 주제로 주민 주도의 축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문화 활동의 실험 무대로서 마을 축제가 갖는 가능성에 주목하였음

(3) 추진 목적

- 본 축제는 단순한 마을 잔치를 넘어, 원촌마을만의 지속 가능한 문화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존의 일회성 마을 잔치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을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며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주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사업, 장사의 문화공간 조성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장사의 문화공간과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을 실험하여 향후 축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4) 기획 의도

- 원촌마을 어울림 한마당은 '주민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핵심 기획 방향으로 삼았음
- 주민참여사업을 통해 습득한 사물놀이를 활용한 길놀이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마

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 마을 중앙 광장을 공연 무대로 활용하여 공간의 상징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하모니카 동아리, 색소폰·기타 연주 등 주민 재능을 발굴·공유하는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함
- 마을 노래자랑을 시범 운영하여 향후 장사의 문화공간과 연계 가능한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함
- 마을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활동 사진 전시를 통해 마을 변화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홍보하고자 함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2024년 원촌마을 어울림 한마당은 장사의 문학관 건립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마을주민 노래자랑'을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음. 특히 장사의 선생의 노래 「찔레꽃」을 모티브로 제작한 '찔레꽃 문패'를 전시하고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은 마을 정체성을 공유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되었음
- 부녀회에서는 국밥 등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 잔치를 겸해 제공하였으며, 이는 향후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시범 모델로서 의미 있는 시도로 남았음

(2) 보도자료

「원촌마을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 보도에 따르면, 제3회 원촌마을 어울림 한마당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한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마을축제로 소개되었음. 특히 사물놀이 길놀이, 주민 노래자랑, 동아리 공연 등 주민 개개인의 재능과 이야기가 축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주민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또한 이번 축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향후 조성 예정인 장사의 문학관과의 연계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으로 조명되었음. 주민 노래자랑과 찔레꽃 문패 전시는 장사의 선생의 음악 세계와 마을 공동체의 정서를 연결하는 상징적 프로그램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원촌마을이 지향하는 문화 기반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아울러 부녀회가 준비한 음식 나눔과 마을잔치 형식의 운영 방식은 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마을 협동조합 및 지역 소득 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 사례로 언급되었음. 보도에서는 원촌마을 어울림 한마당이 일회성 행사를 넘어,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체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10. 거북이마당놀이보존회 [구항 거북이축제]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거북이마을은 마을 전체의 지형이 거북이 형상을 닮아 이름 붙여진 전통 마을로, 아홉 가지 보물이 덮여 있다고 전해지는 보개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유서 깊은 마을임. 마을 중심에는 500년 수령의 느티나무와 고려 말 충신 담양전씨 삼은(야은·노은·경은)을 모신 구산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종가 고택과 다양한 유물이 보존되어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간임
- 또한 조선 숙종 대 영의정을 지낸 약천 남구만 선생의 출생지이자 강학 공간이었던 약천초당이 위치해 있어, 시문학과 농경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마을로 평가받음. 봄 철에는 수선화와 벚꽃이 마을 곳곳을 물들이며, 보개산의 소나무숲과 대나무숲, 섬다리 연못 등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험이 가능한 문화·생태 복합 마을임

② 마을리더

- 이장 : 정태희, 노인회장 : 서용삼, 부녀회장 : 김기화, 거북이마당놀이보존회장 : 김

진섭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1회 구항 거북이 축제
- 일시 : 2025. 10. 15.(화) 10:00 ~ 17:00
- 장소 : 거북이마을 구산사 일원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436번길)
- 방문자 수 : 약 150명
- 주민참여자 수 : 45명 (노인회 10명, 부녀회 20명, 청년회 15명)
- 본 축제는 거북이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운영하는 전통 기반 마을축제로, 마을에 전승되어 온 민속문화와 공동체의 삶을 축제 형식으로 재구성한 행사임. 거북이전통회관에서 구산사까지 이어지는 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오방제 재현, 거북이마당놀이, 대동놀이 등 전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공연·전시가 어우러진 마을 공동체형 축제로 진행되었음

(2) 추진 배경

- 구항 거북이마을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민속문화와 공동체 전통을 보유한 마을로, 이를 주민 스스로 재해석하고 현재의 삶과 연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세대 간 문화 단절과 공동체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마을의 전통과 이야기를 주민 주도의 축제로 재구성하여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축제가 추진되었음
- 아울러 지역 고유의 민속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를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외부에 알리고, 주민 간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3) 추진 목적

- 구항 거북이 축제의 추진 목적은 첫째, 마을에 전승되어 온 민속문화와 공동체의 기억을 축제를 통해 재조명하고 계승하는 데 있음
- 둘째, 노인회·부녀회·청년회·거북이마당놀이보존회 등 마을 구성원이 역할을 나누어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공동체 결속을 도모하고자 함
- 셋째,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축제를 통해 마을의 전통과 이야기가 문화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4) 기획 의도

- 본 축제는 '풍경의 정원, 거북이마을'을 주제로, 전통 민속문화와 마을의 삶을 현대적인 축제 형식으로 풀어내는 데 기획의 초점을 두었음
- 길놀이 퍼레이드, 오방제 재현, 거북이마당놀이, 대동놀이 등 전통 기반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되, 주민 버스킹 공연, 장기자랑, 전통놀이 체험, 거북탈 공예 및 의상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를 결합하여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구성하였음
- 또한 마을 역사 전시, 포토존, 농특산물 먹거리 부스를 통해 마을의 문화·생활·역사를 입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보고·듣고·체험하는' 종합적인 마을문화 축제의 장을 구현하고자 하였음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구항 거북이 축제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운영한 마을축제로, 전통과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거북이전통회관에서 구산사까지 이어진 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오방제 재현, 거북이마당놀이, 대동놀이가 이어지며 마을 고유의 역사와 민속이 자연스럽게 축제 속에 녹아들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특히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거북이마당놀이보존회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세대 간

협력 구조를 이룬 점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전통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마을축제가 세대를 잇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 주민들은 이번 축제를 통해 “마을의 전통과 이야기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거북이마을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했음

(2) 보도자료

「주민이 함께 만드는 전통의 향기 ‘구항 거북이 축제’」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항 거북이 축제’는 ‘풍경의 정원, 거북이마을’을 주제로 지역 고유의 민속놀이와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 구성이 특징으로 조명되었음
- 보도에서는 길놀이 퍼레이드, 오방제 재현, 거북이마당놀이, 대동놀이 등 전통 기반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민 버스킹 공연, 장기자랑, 거북탈 공예 및 의상 체험, 마을지도 탐방과 스템프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가 어우러져 관람객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의 장이 형성되었다고 전했음
- 또한 거북이마을 역사 전시, 포토존, 농특산물 먹거리 부스를 통해 마을의 문화·생활·역사가 입체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 문화의 힘이자 공동체 회복의 원동력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음

11. 거북이마당놀이보존회 [수선화 축제]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거북이마을은 마을 전체의 지형이 거북이 형상을 닮아 이를 붙여진 전통 마을로,

- 아홉 가지 보물이 덮여 있다고 전해지는 보개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유서 깊은 마을임. 마을 중심에는 500년 수령의 느티나무와 고려 말 충신 담양전씨 삼은(야은·노은·경은)을 모신 구산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종가 고택과 다양한 유물이 보존되어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간임
- 또한 조선 숙종 대 영의정을 지낸 약천 남구만 선생의 출생지이자 강학 공간이었던 약천초당이 위치해 있어, 시문학과 농경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마을로 평가받음. 봄 철에는 수선화와 벚꽃이 마을 곳곳을 물들이며, 보개산의 소나무숲과 대나무숲, 섬다리 연못 등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험이 가능한 문화·생태 복합 마을임

② 마을리더

- 이장 : 정태희, 노인회장 : 서용삼, 부녀회장 : 김기화, 거북이마당놀이보존회장 : 김진섭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1회 거북이마을 수선화 축제
- 일시 : 2025. 4. 4.(화) ~ 4. 6(목)
- 장소 : 거북이마을 구산사 일원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436번길)
- 방문자 수 : 약 1,500명
- 주민참여자 수 : 45명 (노인회 10명, 부녀회 20명, 청년회 15명)
- 본 축제는 거북이마을의 대표 봄꽃인 수선화를 매개로, 마을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군민과 공유하고자 처음 개최된 마을 대표 축제임. 구산사에서 마을 입구까지 이어지는 수선화 꽃길과 벚꽃 경관을 중심으로 전통공연, 체험, 먹거리 나눔이 어우러진 주민 참여형 축제로 운영되었음

(2) 추진 배경

- 수선화 식재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마을 경관 조성 사업을 계기로, 마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이를 마을 축제로 확장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주민 간 교류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출향인과 외부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3) 추진 목적

- 본 축제는 거북이마을의 수선화 절경과 전통문화를 홍성군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오방제와 마당놀이 등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하여 살기 좋은 거북이마을의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아가 주민 주도의 축제 경험을 통해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4) 기획 의도

- 수선화 축제를 통해 봄의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연 경관 감상과 함께 시골마을 특유의 정이 담긴 음식 나눔, 전통 마당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를 구현하고자 하였음. 특히 거북이 마당놀이보존회의 참여를 통해 마을 전통예술의 계승과 대중적 향유를 동시에 도모 하였음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참여 주민들은 첫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수선화 꽃길과 전통 공연을 함께 즐긴 점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평가하였음. 특히 노인회와 부녀회, 마당놀이보존회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전통 계승과 손님맞이를 함께 수행한 점이 마을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축제를 계기로 추가

수선화 식재와 마을 환경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어졌음

(2) 보도자료

「홍성군, 구항 거북이마을 수선화 축제 개최」

- 보도에 따르면, 본 축제는 마을 경관 조성과 전통문화 계승을 결합한 사례로 소개되었음. 구산사 일원에 조성된 수선화 군락과 벚꽃길은 봄철 대표 방문 명소로 주목받았으며, 거북이마당놀이와 풍물 공연은 마을 고유의 문화자산을 주민 스스로 재현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보도에서는 특히 주민 주도의 기획과 운영, 출향인의 참여, 세대 간 협업 구조를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축제로 조명하였음. 아울러 거북이마을 수선화 축제가 향후 구항면을 대표하는 계절형 마을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례로 소개되었음

12. 이더러문화보존회 [제11회 이더러우물축제]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반교마을은 약 1,400년 전 삼국시대 백제 시기에 종이 생산과 교역이 활발히 이루 어졌던 역사적 마을로, 당시 종이를 실어 나르던 배가 드나들던 항구에서 유래해 '밴다리', '배다리'를 거쳐 오늘날의 '반교'라는 지명이 형성되었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반교마을이 단순한 농촌 마을을 넘어, 물과 산업, 교류의 거점으로 기능해 왔음을 보여줌
- 마을에는 백제 시대 종이 제작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이더러샘이 위치해 있음. '이더러'는 홍성 지역에서 사용되던 방언으로 '이웃'을 의미하며, 이 샘은 마을 공동체의 생명줄이자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해 왔음. 이더러샘은 1,400년 동안 한 번도 마르지 않은 샘으로 전해지며, 예로부터 용신이 깃든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어

용왕제를 지내는 신앙 공간이기도 하였음

- 2014년,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역사와 신앙, 공동체의 기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뜻을 모아 '이더러 우물축제'를 시작하였음. 특히 최근 반교마을 전체 55가구 중 약 20가구가 귀농·귀촌 가구로 구성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합과 공동체 유대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축제는 이를 잇는 핵심 매개로 기능해 왔음

② 마을리더

- 이장 : 조권영, 부녀회장 : 김태은, 새마을지도자 : 조규안, 노인회 총무 : 조해영, 총무 : 이기찬, 반장 : 이희상, 위원 : 정욱진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11회 이더러 우물축제
- 일시 : 2024년 10월 4일(금) 10:00 ~ 16:00 (2025년 축제는 미운영)
- 장소 : 이더러샘 일원(홍동면 신기리 202)
- 방문객 수 : 약 200명
- 주민 참여 인원 : 약 90명 (노인회 30명, 부녀회 30명, 청년회 30명)
- 이더러 우물축제는 이더러샘을 중심으로 마을의 역사·신앙·생활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주민 참여형 마을축제로, 공연·의례·체험·음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축제 구조를 갖음

(2) 추진 배경

- 이더러 우물축제는 반교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운영해 온 마을축제가 10년의 역사를 이어온 시점에서, 축제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고 향후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특히 전통적인 우물제와 마을 신앙을 현대적 문화콘텐츠로 재해석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와 공동체 의례를 보존·계승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추진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귀농·귀촌 가구 증가로 인한 마을 구성의 변화 속에서,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의 기억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장으로서 축제의 역할이 강조되었음

(3) 추진 목적

- 주민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이더러샘과 우물제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통해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원주민과 귀농·귀촌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4) 기획 의도

- 이더러 우물축제는 '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생명과 공동체를 잇는 상징으로 설정하고, 우물의 역사와 이야기를 공연·연극·체험 프로그램으로 풀어내는 데 기획의 초점을 두었음. 우물제 재연, 탈 인형극, 풍물과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마을의 신앙과 예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를 지향하였음
-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설거지와 뒷정리를 남성 주민이 맡는 운영 방식을 통해 환경 보호와 성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친환경·생활 밀착형 축제로 기획되었음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참여 주민과 방문객들은 이더러 우물축제를 두고 "진정한 마을축제의 모습",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축제"라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전하였음. 공연의 완성도

와 음식의 질, 주민 참여도가 높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연극공연과 풍물·사물놀이가 우물 이야기와 잘 어우러져 인상 깊었다는 반응이 이어졌음. 오락 경기와 체험 프로그램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축제 전반에 활기와 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2) 보도자료

「마을 주민이 만드는 ‘이더러 우물축제’」

- 보도에 따르면, 본 축제는 흥동면 반교마을의 이더러샘이 오랜 세월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신앙이 깃든 공간임을 조명하며, 용왕제를 시작으로 탈 인형극, 반교가락 사물놀이, 체험 부스, 화합 경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고 전했음. 이러한 구성은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음
- 또한 반교마을 풍물교실 지도자로 활동해 온 예술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장면을 통해, 마을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 온 문화적 연대와 지속적인 협력의 의미가 강조되었음
- 반교마을 이장은 보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 가는 축제가 마을 고유의 가치를 담은 진정한 마을축제”라며, 이더러 우물축제를 흥성군을 대표하는 마을 축제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13. **홍북읍주민자치지역발전계획단[마한시대 사람들 축제 재현 석택리의 비밀]**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석택리 마을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에 위치한 마을로, 마한시대 유적이 남아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임. 마을 일대에서 발견된 유물은 홍성이 마한문화

권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평가됨

- 내포신도시와 인접한 석택리 마을은 도시화 속에서도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주민자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홍북읍주민자치지역발전계획단을 중심으로 마한시대라는 고유의 역사 자원을 주민 주도의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있음
- 이번 「마한시대 사람들 축제 재현-석택리의 비밀」은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한 축제로,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마을을 잇는 문화적 실천 사례로 평가됨

② 마을리더

- 홍북읍주민자치지역발전계획단 단장 정윤, 사무장 구하라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1회 마한시대 사람들 축제 재현 - 석택리의 비밀
- 일시 : 2025. 10. 02. (목) 17:00 ~ 22:00
- 장소 : 내포 시민광장
- 방문자 수 : 집계 없음
- 주민참여자 수 : 집계 없음
- 「제1회 마한시대 사람들 축제 재현-석택리의 비밀」은 홍북읍 석택리 일대에 남아 있는 마한시대 유적과 역사적 자산을 주제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주민주도형 생활문화축제임
- 본 축제는 마한시대의 생활상과 문화를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었음

(2) 추진 배경

- 홍북읍 석택리는 마한시대 유적이 분포한 역사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체감되거나 문화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재해석 함으로써, 석택리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주민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특히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주도의 자치형 축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축제를 추진하게 되었음

(3) 추진 목적

- 마한시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축제 운영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전시·공연·체험이 결합된 생활문화축제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향후 석택리 유적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기획 의도

- 본 축제는 '마한시대 사람들의 삶'을 키워드로,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음
- 전시마당, 공연마당, 체험마당을 중심으로 마한시대의 생활상과 현대의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으며,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 함으로써 축제 자체가 공동체 활동의 과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석택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현재의 삶과 연결되는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기획의 핵심 의도로 삼았음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제1회 마한시대 사람들 축제 재현-석택리의 비밀'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생활문화축제로,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이 마한시대라는 주제 아래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세대 간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축제가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기능하였음
- 주민들은 이번 축제를 통해 석택리 유적이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평가하였음

(2) 보도자료

「주민이 만든 역사문화축제, 내포시민광장서 첫 발 내딛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한시대 사람들 축제 재현-석택리의 비밀'은 주민이 주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자치형 축제로 소개되었음
- 마한 유적 전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으며,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한 점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강조되었음
- 이번 축제는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축제가 지닌 가능성과 확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었음

14. 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 [놀궁리 해상공원 축제]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천수만 권역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포구를 중심으로 서해안의 자연환경과 어촌·농촌의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임. 천수만 AB방조제를 따라 펼쳐지는 바다 풍경과 썰물 시 드러나는 광활한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서해안 생태환경의 가치를 잘 보여줌
- 궁리항 일원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공원과 농어촌 생활문화센터인 궁리 어울림 센터를 비롯하여, 서해안 갯벌 생태체험관, 홍성 스카이타워, 승마장,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관광·체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음. 이러한 자연·생활·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천수만 권역은 사계절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해양·농어촌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② 마을리더

- 이장 : 이순진, 노인회장 : 고광규, 부녀회장 : 최명숙, 궁리어촌계장 : 박봉래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놀궁리 해상공원 축제는 궁리항 해상낚시체험공원을 새롭게 단장한 「놀궁리 해상파크」의 개장을 기념하고, 마을 주민 간 화합과 지역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마련된 주민 참여형 마을축제임
- 궁리 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는 먹거리, 체험, 공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상공원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살려 궁리항의 변화된 모습을 알리는 계기로 운영되었음

(2) 추진 배경

- 궁리항 일원은 천수만의 해양 생태환경과 어촌의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궁리항 뉴딜사업을 통해 해상낚시체험공원이 「놀궁리 해상파크」로 새롭게 조성되며 물리적 기반이 크게 개선되었음. 그러나 공간 조성 이후, 해당 시설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계기와 공동체적 연결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놀궁리 해상파크의 준공을 단순한 시설 개장에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변화된 마을의 모습을 공유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확장하고자 본 행사가 기획되었음. 더불어 어촌계, 노인회, 부녀회 등 지역 단체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궁리항과 천수만 권역의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주민 참여형 마을축제의 필요성이 추진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3) 추진 목적

- 본 축제는 놀궁리 해상파크 개장을 계기로 마을 주민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아울러 궁리항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과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고 경험함으로써, 사업 성과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천수만 권역이 보유한 해양·갯벌·어촌 자원을 문화적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궁리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 운영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기획 의도

- 놀궁리 해상공원 축제는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형·참여형 축제를 지향하며, 해상공원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축제 전반은 놀궁리 해상파크 개장을 주민 스스로 축하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으며, 어촌의 일상과 수산물을 연계한 먹거리와 체험을 통해 궁리항만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하였음
- 또한 어촌계, 부녀회, 노인회 등 마을 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세대와 조직을 아우르는 공동체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축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궁리항과 천수만 권역을 대표하는 주민 주도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획의 의의를 두었음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궁리어촌계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어울림센터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마을의 변화된 모습과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음
- 주민들은 해상공원 개장을 계기로 “궁리가 관광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으며, 향후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대를 나타냈음

(2) 보도자료

「홍성군, 바다와 함께하는 ‘놀궁리 해상공원 축제&청운’ 개최」

-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과 청운대학교가 공동 주관해 바다마을의 삶과 문화를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한 참여형 축제로 마련됐으며, 행사는 풍어제를 시작으로 연극 「별주부전」, 서부풍물 퍼레이드, 생태·공예 체험 프로그램, 석양 영화제, 지역 예술공연 등으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음
-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축제가 천수만의 자연과 주민의 삶이 어우러진 로컬 문화 축제로서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모델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음

15. 결성면 마을학교 운영위원회 [제2회 꽃보다 농부축제]

1) 마을 소개

① 마을소개

- 결성면은 결성읍성, 결성 동헌, 형방청 등 조선시대 행정과 군사 기능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이 집적된 지역으로, 홍성군 내 면 단위 지역 중에서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 그러나 이러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기준 인구 약 2,000명으로 홍성군 내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 중 하나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이에 결성면 마을학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생활문화와 결합한 축제와 교육 활동을 기획·운영하며, 결성읍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 재생과 지역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꽃보다 농부축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업과 농부의 삶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하여 결성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외부에 알리고자 기획된 축제임

② 마을리더

- 대표 : 송채민, 사무장 : 최인숙, 매니저 : 오향도

2) 축제 소개

(1) 축제 개요

- 축제명 : 제2회 꽃보다 농부축제
- 일시 : 2025. 10. 18.(토) 13:00 ~ 18:00
- 장소 : 결성동헌 일원(홍남서로 738번길 23)
- 방문자 수 : 약 200명
- 주민참여자 수 : 약 20명 (결성마을학교 운영위원회 5명, 좌우촌 마을회 8명, 결성 농요 보존단 10명, 결성사회적협동조합 2명 등)

(2) 추진 배경

- 결성면은 홍성군 내에서도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성읍성 복원 및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문화재가 실제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활용도가 낮

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결성마을학교 운영위원회는 결성의 역사문화 자산을 단순한 관람 대상이 아닌,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콘텐츠로 전환하고자 본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음

(3) 추진 목적

- 본 축제는 결성면이 지닌 농업과 역사, 문화유산을 연계한 주민 참여형 축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외부 방문객에게 결성읍성과 결성마을의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마을 문화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기획 의도

- '꽃보다 농부축제'는 농업과 농부의 삶을 주인공으로 삼아, 결성 지역의 전통적인 농경 문화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하는 데에 기획의 초점을 두었음
- 농요 공연을 통해 옛 농부들의 노동과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떡메치기 체험과 전통 음식 시식을 통해 조선시대 식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또한 농부의 옷을 입고 농기구를 활용한 사진 촬영 체험을 통해 전통 의복과 생활도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참여형 역사문화 체험 축제로 기획하였음

3) 후기 및 보도자료

(1) 참여자 후기

- 이번 축제는 그동안 외부 관광객의 방문이 거의 없었던 결성읍성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음. 축제를 통해 결성읍성의 복원 사실과 결성마을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으며, 방문객들은 결성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농촌 문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주민들은 소규모이지만 의미 있는 첫 축제를 통해 향후 결성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문화도시 사업 등과 연계한 정기적인 축제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음

(2) 보도자료

「결성면 마을학교 운영위원회, 꽃보다 농부 축제 개최」

- 결성면 마을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결성동현 일원에서 '제1회 꽃보다 농부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결성읍성과 전통 농경 문화를 활용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생활문화축제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적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음
- 행사에서는 결성농요 공연을 비롯해 떡메치기 체험, 전통 의상 및 농기구 체험, 전통 음식 시식 등 농부의 삶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약 200명의 방문객이 결성읍성을 찾았음
- 결성면 마을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결성의 역사와 농업 문화를 주민 스스로 재발견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마을 자원을 활용한 문화 활동을 통해 결성이 다시 찾고 싶은 마을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제3장 마을축제 기획자 대상
인터뷰

1. 관계자 대상 심층 인터뷰 (FGI)

1) 조사설계

(1) 조사개요

-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Focus-Group Interview, FGI)은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한 토론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질적 연구방법임
- 「홍성군 마을축제 운영현황 및 본교와의 협력 방안 연구」를 위해 홍성군 내 13개 마을축제 대표자 및 기획자(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FGI)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마을 축제 세부 현황 및 본교와의 협력방안을 도출하였음
- 인터뷰는 개인별 업무 및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방식의 형태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2) 대상자 선정 및 진행 절차

- 대상자 선정은 '홍주문화관광재단' 주관 '마을축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16개 마을축제의 대표자, 기획자(실무자)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교의 마을축제 협력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13개 마을과 논의하여 마을축제 운영 현황의 이해도가 높은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음
- 선정기준은 개별 마을축제 운영을 총괄한 기획자, 마을축제의 시작 및 연차별 흐름의 이해도가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 인터뷰 전, 홍성군 마을축제의 이해도가 높은 대표 기획자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심층인터뷰 의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사전에 배포하여 인터뷰 진행시 논의할 내용을 조율하였음
-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해당 마을축제의 운영 현황 및 지향 가치, 운영상의 어려움, 대표 프로그램의 형태, 본교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음
- 인터뷰는 개별 마을별로 1회씩 진행하였으며, 축제 참여 및 협력과 공동운영을 실

시하는 일부 마을의 경우 이의 협력을 위한 별도의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하였음

<표 3-1> FGI 연구 참여자 명단

구분	참여 유형	성명	성별(나이)	소속	활동(거주) 기간	거주지
참여자1	기획자	김○○	남(70대)	기북이마당놀이보존회	5년	충남 홍성군
참여자2	기획자	송○○	여(40대)	결성면마을학교운영위원회	5년	충남 홍성군
참여자3	마을대표	송○○	남(60대)	결성 원천마을	10년 이상	충남 홍성군
참여자4	기획자	김○○	남(60대)	꽃무릇마을회	10년 이상	충남 홍성군
참여자5	기획자	김○○	여(30대)	대천마을회	10년 이상	충남 홍성군
참여자6	기획자	주○○	남(60대)	문당리환경농업마을	10년 이상	충남 홍성군
참여자7	마을대표	이○○	남(60대)	상황마을	10년 이상	충남 홍성군
참여자8	마을대표	박○○	남(60대)	오서산 상담마을	10년 이상	충남 홍성군
참여자9	마을대표	이○○	남(70대)	원촌마을	10년 이상	충남 홍성군
참여자10	기획자	조○○	남(70대)	이더러문화보존회	10년 이상	충남 홍성군
참여자11	마을대표	이○○	남(60대)	천수만권역영어조합 법인	10년 이상	충남 홍성군
참여자12	기획자	정○	남(60대)	홍북읍주민자치지역 발전계획단	3년	충남 홍성군
참여자13	기획자	최○○	여(50대)	홍성읍 오관2리 경노당	5년	충남 홍성군

○ [인터뷰] - 일시 : 2025년 9월 5일(금) ~ 10월 25일(토) 중 1일씩 2시간 진행

- 방식 : 대면 인터뷰
- 대상자 : 마을별 축제 운영 기획자, 대표
- 연구자 : 연구진 1명

(3) 자료 수집 및 분석

○ 자료 분석에는 마을축제 관련 이론 및 정책, 기획·운영 등 관련 분야 경험 8년 이상 인 연구원 2명을 주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이들 모두 질적 연구 및 다양한 연구 경력을 통해 대상자들과의 인터뷰를 객관

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임

- 인터뷰 시간은 그룹 당 90~1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각 인터뷰는 연구원 1인이 매 시간을 함께 참여하였음. 연구원 1인이 녹취 및 질문사항에 대한 기록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녹음 내용을 전사한 인터뷰 내용 기록물과 현장노트가 활용되었음. 인터뷰 자료는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1차 모임에서 모든 연구진이 모여 분석함으로써 편향적 해석의 오류를 줄였고, 분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의견에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 자료를 연구진 각자가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는 연구진이 상호 검토를 한 후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자료를 추출하였음

2) 분석결과

- 심층 인터뷰(FGI) 과정에서 다룬 주된 내용은 마을방문 전 사전질문지를 통해 배포하였고, 이를 항목별로 질문하는 방식을 취했음. 결과적으로 마을축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대표 및 기획자들이 '홍성군 마을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 분석결과는 개별 마을축제별로 축제 운영 현황 및 목적, 대표 프로그램, 본교와의 협력방안을 순차적으로 작성하였음

(1) 인터뷰 1차 (거북이 마당놀이 보존회)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에 위치한 이른바 '거북이 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거북이 마당놀이와 오방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을축제의 운영 실태 및 지속 가능성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특히 본 지역은 약 400~500년에 이르는 공동체 의례와 연희 전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인적 자원 단절로 인해 전승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 2025년 가을, 구항면에서는 기존의 봄철 관광형 축제인 '수선화 축제'와는 별도로, 전통 연희를 핵심 콘텐츠로 하는 '구항 거북이 축제'를 신규로 기획·운영하였음. 이에 따라 본 인터뷰는 단순한 행사 운영 논의를 넘어, 전통 연희 기반 마을축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 정체성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부 전문 집단(대학, 청년 예술가 등)과의 협력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② 거북이 마을의 전통적 배경과 축제 현황 (마을 정체성과 전통 자원)

- 구항면은 지형적으로 보계산의 형상이 거북이를 닮았다고 전해지는 지역으로, 마을이 그 '거북목'에 해당한다는 민간 인식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 이러한 지형적·상징적 인식은 곧 마을의 명칭과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거북이를 상징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 의례와 놀이가 형성되었음
-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전통 자원은 오방제와 거북이 마당놀이임. 오방제는 정월 대보름 무렵 마을의 동·서·남·북·중앙 다섯 지점에서 지내는 공동체 제의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 주민 개개인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의례임. 거북이 마당놀이는 이러한 오방제의 의례적 성격에 대동놀이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의 전통 연희로, 집집마다 고사를 지내며 잡귀를 몰아내고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수행해 왔음

③ 거북이 마당놀이와 축제의 형성 배경

- 거북이 마당놀이는 구항면 거북이 마을에 수백 년 이상 전승되어 온 마을 공동체 연희로, 마을의 안녕과 액막이를 기원하는 '오방제(五方祭)'와 '건립(建笠, 집집마다 돌며 고사를 지내는 행위)', 그리고 '대동놀이'가 결합된 종합적 민속 공연임
- 마을 관계자에 따르면, 정월 보름에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향에서 제를 지내는 오방제는 마을 구성원들의 무사안녕, 외지 출타자의 안전을 기원하는 중요한 공동체 의례로 기능해 왔음. 실제로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오방제를 지낸 이후 큰 사고가 없었다"는 구전이 전해질 만큼, 거북이 마당놀이는 신앙·의례·놀이가 결합된 생활문화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전통은 과거에는 별도의 축제 형태가 아니라 마을 내부 놀이 혹은 외부 초

청 공연의 형태로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승 기반이 약화되었음.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고 외부에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을철 '구항 거북이 축제'를 새롭게 기획하게 되었으며, 2025년을 기준으로 1회차 축제가 추진되고 있음

④ 거북이 마을의 전통적 배경과 축제 현황 (축제 운영의 변화 과정)

- 구항면에서는 2023년부터 봄철에 '수선화 축제'를 개최해 왔음. 1회차는 외부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이후에는 자체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지속되고 있음. 수선화 축제는 꽃과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형 축제의 성격이 강함
- 반면, 2025년 가을에 처음으로 기획된 '구항 거북이 축제'는 관광 이벤트보다는 전통 연희와 마을 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둔 축제로서, 오방제와 거북이 마당놀이를 중심 콘텐츠로 설정하고 있음. 이는 기존 수선화 축제와 명확한 기능적 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⑤ 거북이 마당놀이의 구성과 현황

- 거북이 마당놀이는 원래 다수의 마당(일마당~오마당 이상)으로 구성된 장시간 공연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인적 자원 부족과 공연 여건을 고려하여 2~3마당 중심의 축약본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본은 과거 어르신들에 의해 구술로 전승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차례 정리·수정되었으며, 2010년대 초반에는 학술 연구 및 도 단위 지원 사업을 통해 체계화가 시도된 바 있음. 특히 2011~2012년경 민속학 연구자(안동대 한양령 교수 등)에 의해 학술지에 소개되었고, 이후 충남도 지원을 받아 약 3년간 복원·정비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전문 연희 인력과 지속적인 훈련 체계의 부재로 완전한 부활에는 이르지 못했음
- 다만 (1) 민속학 학술지 수록 논문(2011~2012년), (2) 충남도 지원 전통문화 복원 사업 보고서(2015~2017년 초본 및 최종본), (3) 청운대학교 교양과목 「지역의 민속과 전설」 운영 사례 및 관련 영상 자료 등의 연구·기록 자산은 향후 연구과제 수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공연 영상, 대본 변천 과정, 당시 참여자 증언

등은 문화자산 아카이빙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가 있음

- 현재 보존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승 인력의 고령화와 절대적 인적 자원 부족임. 주요 전승자들이 70~80대에 이르며, 일부 핵심 기능 보유자는 이미 별세하여 연희의 완성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⑥ 인적 자원 문제와 청년 참여 필요성

- 인터뷰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핵심 쟁점은 '사람이 없다'는 문제였음. 공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할별 대체 인력(A/B팀)이 필요하나, 현재는 1인 1역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공연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임
- 이에 대해 마을 측은 대학생·청년 예술가의 참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재해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보였음. 다만, 원형 훼손에 대한 우려와 기존 참여 어르신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원형 보존 공연'과 '현대적 재해석 공연'을 분리 운영하는 트랙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었음
- 본교와 같은 지역 대학이 중장기적으로 참여할 경우, 인력 지원뿐 아니라 연구·교육·창작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⑦ 전승 및 축제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 첫째, 인적 자원의 급격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현재 공연 참여자의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로, 핵심 기능을 수행하던 인물의 별세 이후 대체 인력이 존재하지 않음. 이로 인해 외부 공연 요청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임
- 둘째, 전문 기획·연출 인력의 부재임. 전통 연희 자체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성하거나 관객 친화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임
- 셋째, 중장기적 정책 비전의 부재임. 과거 단기적 예산 투입은 있었으나, 전승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음

⑧ 대학 협력에 대한 마을의 인식과 기대

- 인터뷰 과정에서 마을 측은 대학과의 협력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고 실질적인 기대를 표명하였음.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젊은 인적 자원의 유입으로, 전통 연희 보조 인력, 공연 참여자, 기획·운영 스태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층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임
- 또한 전통의 핵심 가치와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젊은 세대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현대적 연출과 해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다만, 젊은 대본 변경이나 급격한 형식 변화는 고령의 연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 원형 공연과 창작·재해석 공연을 분리 운영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의 가능성도 언급되었음

⑨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본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구항 거북이 마당놀이는 이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 무형문화유산임. 문제는 가치의 부족이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전승 구조의 붕괴에 있음
- 따라서 향후 과제는 마을 단독 보존이라는 한계를 넘어, 대학과 지역사회, 청년예술 인력이 결합된 협력형 전승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음. 이는 전통문화 보존, 청년 교육 및 실습, 지역축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지역혁신 및 RISE 사업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구항 거북이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동체 연희를 현대적 맥락 속에서 재생시키기 위한 중요한 실험의 장이며, 본 인터뷰는 그 가능성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초 자료로서 의의를 가짐

(2) 인터뷰 2차 (결성면 마을학교 운영위원회)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결성면 마을학교 운영위원회 및 마을 관계자들과의 심층 논의를 통해, 결성면 마을축제의 기획 배경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결성초등학교 존립 위기라는 지역 현안과 마을축제 및 문화자원 활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진행되었음
- 특히 본 인터뷰는 마을축제가 단순한 지역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문화·관광·청년 유입을 포괄하는 지역 재생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연구적 목적을 둠
- 결성면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초등학교 학생 수 급감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에 따라 마을 차원에서는 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시도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외부 인구 특히 아동·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본 인터뷰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과 실천적 고민을 구체적으로 기록·분석하는 자료로서 의미를 지님

② 결성초등학교 존립 위기와 지역의 구조적 한계

- 인터뷰 전반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난 문제의식은 결성초등학교의 존립 위기였음. 현재 결성초등학교의 전교생 수는 약 19명 수준으로, 분교 전환 혹은 폐교 가능성 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 마을에서는 방과후 돌봄 운영, 통학 차량 지원, 장학금 및 급식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 이라기보다는 위기를 임시로 완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마을 관계자들은 학생 유입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주거 공간 부족 ▲교통 접근성 문제 ▲지역 내 일자리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음. 결성면은 생활 환경 자체로 보면 쾌적하고 안정적이지만, 외부에서 이주를 고려하는 젊은 세대나 학부모의 관점에서는 실제 거주와 생활을 결정할 만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평가가 반복되었음
- 연구자(박칠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개별 마을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군 단위 행정, 교육청, 대학 등과의 구조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음. 특히 청년 예술인이나 대학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논의할 때, 수도권과

비교해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는 점은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③ 마을축제의 기획 배경과 ‘학교 살리기’라는 핵심 목표

- 결성면 마을축제는 지역 화합이나 관광 활성화만을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가 아니라, 결성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출발하였음. 마을 관계자들은 축제를 통해 결성이라는 지역의 존재와 교육 환경을 외부에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초등학생 전학 및 장기적인 정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 특히 결성면 마을축제는 홍성군 내에서도 드물게 초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 축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축제는 결성의 문화재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결성농요, 풍물, 전통 농부의 삶과 식문화, 세대 통합형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 2024년 1회 축제 당시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맘카페)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약 5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유입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동시에 행사 운영 인력과 공간 수용 능력의 한계, 프로그램의 지속성 부족이라는 과제도 함께 드러났음. 이는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④ 결성면 문화자원의 잠재력과 활용상의 한계

- 결성면은 결성농요, 향교, 한용운 선생 생가, 옛 양조장 터, 야구장 및 체육 인프라 등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임. 그러나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한 자원이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분절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음
- 특히 결성농요는 노동요로서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콘텐츠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재구성되지 못한 채 보존 중심의 활동에 머물러 있다 는 한계가 드러났음. 전승자와 이수자 중심의 전통 보존은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재해석이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의 확장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한용운 생가와 향교 등 주요 문화공간 또한 전시 중심의 정적인 운영에 머물러 있어, 방문객에게 강한 체험적 인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음. 이는 문화재의 가치 부족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콘텐츠 기획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해석됨

⑤ 교육·공연·체험 중심의 발전 방향 모색

-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공통된 대안은 초등학생을 핵심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교육·체험·공연 프로그램 개발이었음. 단순한 농촌체험이나 기존 학교에서도 제공 가능한 활동이 아니라, “결성에서만 가능한 교육”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결성농요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연극·상황극·체험형 공연 교육, 향교와 마을 공간을 활용한 역할극 및 미션형 체험 프로그램, 대학 및 외부 예술가와 연계한 전문적인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이 논의되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발성 체험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는 점이 강조되었음
- 연구자(박칠순 교수)는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이 상설화될 경우, 주말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예술인의 참여를 연계함으로써 청년 유입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음

⑥ 지역경제 및 청년 유입과의 연계 가능성

- 논의는 교육·문화 영역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장되었음. 그중에서도 옛 결성 양조장 터를 활용한 도시재생 및 전통주 개발 가능성의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었음. 과거 결성 막걸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 자원이었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학 및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할 경우, 수익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음
- 이는 단순한 관광 상품 개발을 넘어, 교육·체험·문화·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적 모델로 평가됨

⑦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본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결성면 마을축제 및 마을학교 운영의 핵심 시사점은 첫째, 결성초등학교 존립 문제는 마을축제의 부차적 의제가 아니라 핵심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축제 기획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다는 점임, 둘째, 결성면은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교육·체험·공연 콘텐츠로 전환하는 체계가 부족하고, 셋째,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결성면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발전 방향이라는 점임. 넷째, 대학, 청년 예술인, 외부 전문 인력과의 협업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임
- 결성면 마을축제는 이미 방향 설정 자체는 적절하며, 향후 과제는 이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본 인터뷰 정리본은 향후 연구과제 분석, 정책 제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3) 인터뷰 3차 (결성원천마을)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원천마을 조룡박 축제의 형성과정, 지속 동력, 운영 방식, 변화 양상 및 향후 발전 방향을 파악하여 마을축제 연구 및 향후 대학-마을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② 조룡박 축제의 시작과 형성 배경

- 원천마을 조룡박 축제는 외부 기획이나 행정 주도가 아닌,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출발한 축제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짐. 축제의 출발점은 약 14년 전, 마을 앞 수로 공간의 환경 개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음. 당시 수로는 관리가 어려워 미관상 좋지 않았고, 깊이가 있어 안전상의 위험도 존재했음

- 이에 주민들은 수로 위에 터널 구조물을 설치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간을 보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음. 이 과정에서 마을 산악회 활동을 통해 다른 지역의 조롱박 터널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원천마을에 적용해 보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음
- 조롱박을 심고 가꾸는 과정은 주민들의 공동 노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터널 내부 바닥 역시 주민들이 직접 데크 공사를 진행하여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음. 이러한 과정은 충청남도의 '희망마을 가꾸기' 등 단계적 지원 사업과 맞물려 점차 안정적인 공간으로 발전하였음
- 초기의 조롱박 터널은 축제라기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국수를 삶아 먹고 하루를 즐기는 공동체 행사에 가까웠음. 그러나 조롱박이 주렁주렁 열린 풍경과 터널을 거니는 경험이 점차 입소문을 타며, 마을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인 축제로 발전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그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12회, 비공식적 시작까지 포함하면 약 14년간 축제가 이어지고 있음

③ 축제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변화

- 조롱박 축제는 매년 8월 초, 조롱박 작황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어 왔음. 무더운 시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롱박이 가장 조롱박다운 시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축제 시기 유지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음
- 초기에는 인디언 바비큐 등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과 함께 비교적 활기찬 분위기로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축제는 비대면 전시 중심으로 축소 운영되었음. 이 기간 동안 조롱박 공예 전시 등 최소한의 형식만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축제의 분위기와 주민들의 참여 의욕이 다소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음
- 최근 들어 마을은 다시 축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노후화된 터널 데크를 합성 데크로 교체하는 공사를 완료하면서 안전성과 공간 완성도를 높였고, 이를 계기로 축제의 질적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음. 대표적인 사례가 안개 분무(미스트) 퍼포먼스 도입인데, 이는 폭염 속에서도 관람객에게 시각적·체감적 시원함을 제공하며, 기존 조롱박 터널에 새로운 볼거리를 더하는 장치로 작동하였음
- 이러한 변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아닌, 마을 내부 자원과 주민의 아이디어를 활

용한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실제로 안개 분무 퍼포먼스는 관람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었음

④ 원천마을의 특수성: 에너지 자립 마을과 축제의 관계

- 원천마을은 조롱박 축제 외에도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태양광, 지열 난방,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발전소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경험은 마을이 각종 공모사업과 주민 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즉, 조롱박 축제의 지속성은 단순히 문화 행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들이 이미 축적해 온 공동체 협력 경험과 행정 대응 역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⑤ 축제의 성격 변화와 외부 방문객 증가

- 조롱박 축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외부 방문객 비중이 높아졌음. 현재 축제 당일 방문객은 약 200명 수준이며, 이 중 약 150명 가량이 외부 방문객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축제 전후 5~7일간 터널을 관람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인원 까지 고려하면, 축제의 파급 범위는 행사 당일을 넘어서고 있음
- 외부 방문객 증가는 마을 인지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고령화된 주민들에게는 준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함. 이에 마을은 축제의 규모 확장 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외부를 위한 축제”보다는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초기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⑥ 지속 동력과 향후 방향성

-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핵심은 축제 지속의 가장 큰 원동력이 주민 스스로의 즐거움과 자부심이라는 점임. 마을 담당자는 축제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향인(마을을 떠난 주민)과 외부 방문객의 자발적 참여를 제시했음

- 또한 최근에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저녁 중심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조롱박 터널 조명, 안개 분무 퍼포먼스, 소규모 음악회나 짧은 연극 공연 등은 여름밤의 분위기와 결합하여 축제의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본교와 같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도 확인되었음. 마을의 이야기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짧은 공연 콘텐츠는 축제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신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⑤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원천마을 조롱박 축제는 자발성, 공동 노동, 공간 재생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축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축제의 지속성은 외형적 규모 확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의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음
- 향후 조롱박 축제는 '확장'보다는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여름밤 프로그램, 외부 협력 인력의 보조적 참여, 그리고 출향인과의 연결을 통해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이는 축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4) 인터뷰 4차 (꽃무릇마을회)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꽃무릇마을회의 축제 운영 주체인 마을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 운영 구조와 축제 기획·실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함. 인터뷰에서는 꽃무릇마을 축제의 형성 배경과 운영 실태, 마을이 보유한 인적·자연·문화 자원의 활용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음
- 본 정리본의 목적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꽃무릇마을회의 축제 운영 현황과 특징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마을 자원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발전 비전 및 대학-마을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여 연구과제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음

② 꽃무릇마을 축제의 형성 배경

- 꽃무릇마을 축제는 2016년 홍성군 차원의 정책 제안에서 출발하였음. 당시 농정자문위원회의 제안으로, 농작물 피해가 없고 경관성이 뛰어난 꽃무릇을 논두렁과 하천변에 대규모로 식재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약 2만 본 이상의 꽃무릇이 마을 일대에 식재되었고, 이후 이를 중심으로 축제가 형성되었음
- 꽃무릇은 꽃과 잎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생태 주기를 지닌 식물로, 가을에 꽃이 진 뒤 겨울과 봄 동안 잎이 자라 영양분을 축적하고, 다시 이듬해 가을에 개화함. 특히 개화 기간이 약 6일 내외로 매우 짧아, 축제 시기 선정과 운영에 있어 높은 난이도를 동반함. 기온 변화에 따라 개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축제 날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인 과제로 언급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이러한 제약 조건을 오히려 꽃무릇 축제의 희소성과 상징성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추석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자연 경관형 축제를 운영해 왔음. 꽃무릇의 꽃말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은 축제의 정서적 서사 자원으로서 향후 콘텐츠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③ 마을 조직 구조와 공동체 특성

- 꽃무릇마을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공동체 구조임. 전체 주민 수는 약 80명 규모이나, 이 중 30~40대 청년층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청년회 구성원은 약 30여 명, 부녀회 또한 약 30여 명으로, 다른 농촌 마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참여가 활발한 편임
- 다수의 주민이 2~3대에 걸쳐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가구는 형제·부모·자녀가 인접해 생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혈연·생활 공동체적 특성은 마을 행사에 대한 높은 참여도와 협력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
- 축제 준비 및 마을 환경 정비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새벽 시간대를 활용해

공동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노동력 제공을 넘어 마을 축제의 핵심 운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에는 축제 주관 체계가 일부 주민 중심에서 청년회 중심의 마을 전체 조직으로 전환되었으며, 분야별 역할 분담과 운영 조직 재편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④ 축제 운영 현황과 방문객 특성

- 꽃무릇 축제는 연간 약 400~500명 규모의 방문객을 유치해 왔으며, 이 중 약 100명 이상은 외부 지역에서 유입된 방문객으로 파악됨. 주요 방문객은 경기도·대전 등 수도권 및 인근 도시권 거주자이며, 사진 동호회, 부부·가족 단위 소규모 관광객의 비중이 높음
- 방문 동기는 꽃무릇 군락의 경관 촬영, 논과 하천이 어우러진 농촌 풍경, 조용한 산책 환경 등으로 요약됨. 축제 기간 외에도 사진작가와 개별 방문객의 자발적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공간이 이미 상설 관광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축제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아직 체험·공연·전시 콘텐츠가 제한적인 상황임. 허수아비 제작, 바람개비 만들기 등 간단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방문객 참여형 전시, 사진 전시, 공간 연출 프로그램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⑤ 공간 자원과 경관 기반 발전 구상

- 꽃무릇마을은 생태 하천, 논 경관, 남산 숲길, 천년여행길 일부 구간 등 다양한 보행·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하천변은 국가 소유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꽃무릇 및 사계절 개화 식물을 활용한 꽃길 조성, 산책로 및 자전거길 연계 구상이 논의되고 있음
- 2027년 예정된 흥성 신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시내–하천–마을을 잇는 생활형 산책 코스 조성, 시민 힐링 걷기 코스 조성 또한 중·장기 목표로 제시되었음. 생태 하천은 아동 대상 생태 교육 공간, 가족 단위 체험 학습 공간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었음

⑥ 관광·경제 연계 전략

- 마을은 축제를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밤나무·아카시아 등 밀원 식물을 활용한 양봉 자원, 지역 제과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꿀빵·꿀 아이스크림 개발, 카페형 거점 공간 조성 등이 구체적 아이디어로 제시되었음
- 아울러 소규모 숙박 시설(펜션, 힐링하우스) 도입을 통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장기 구상도 확인되었음. 이는 홍성 전통시장, 천년여행길, 향후 전철 개통과 연계한 도시민 유입 전략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음

⑦ 대학-마을 협력에 대한 인식과 수요

- 꽃무릇마을회는 본교 라이즈(RISE) 사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기대를 표명하였음. 특히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포토존 및 공간 오브제 제작, 축제 프로그램 기획,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등 전문 영역에서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마을 측은 자체 기획 역량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의 인적 자원과 전문성을 통해 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꽃무릇마을 축제를 홍성을 대표 축제로 성장시키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⑧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꽃무릇마을회 사례는 전통 문화 전승 중심이 아닌, 자연 경관과 생활 환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 축제 모델이라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큼. 특히 청년 인구 기반의 자발적 운영 구조, 생태·관광·경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장기 비전은 다른 농촌 마을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평가됨
- 향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 전문성, 기록화, 공간 연출이 보완될 경우, 꽃무릇마을 축제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상설형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본 인터뷰 정리본은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서, 향후 협력 사

업 설계 및 정책 제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5) 인터뷰 5차 (대천마을회)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들돌축제를 중심으로 한 대천마을의 공동체 기억과 세대 전승 방식, 주민 주도 축제의 운영 원리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과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음. 특히 놀이에서 출발한 마을 축제가 문화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과정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② 축제의 기원과 의미

- 대천마을의 들돌축제는 약 12년 전 마을가꾸기사업 과정에서 시작되었음.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자원찾기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유년 시절 즐겼던 '몸으로 부대끼는 놀이'와 힘자랑 이야기가 다수 등장했고, 그중 들돌 들기가 마을 고유의 상징적 자원으로 부각되었음
- 들돌 들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소년이 성인으로 인정받는 통과의례이자, 머슴·청년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증명하고 연봉(쌀) 협상을 상징적으로 수행하던 행위로 해석됨. 마을 어르신들은 이를 '힘을 통해 어른으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기억하며, 공동체 내부의 인정과 위계가 형성되는 문화적 장치로 인식하고 있었음

③ 축제의 형성과 초기 동력

- 축제 초기에는 들돌 들기 외에도 고무신치기, 새총쏘기, 동전치기 등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 놀이가 함께 구성되었음. 마을 주민들이 처음으로 자기 마을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루 잔치를 열어본 경험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우리끼리 놀아본다'는 경험 자체가 축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음

- 초기 1~2회차에는 인근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며 공동체적 '흥'을 형성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참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음

④ 변화 과정: 놀이에서 문화로

- 축제는 단순 놀이 중심에서 점차 문화예술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발전했음. 김영란을 중심으로 합창, 마당극, 소규모 연극 공연이 도입되었고, 주민들이 직접 무대에서는 방식이 유지되었음. 특히 90세 내외의 고령 어르신들이 참여한 빨랫방망이(다듬이) 공연은 세대 기억을 현재화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됨
- 이 과정에서 '잘하고 못함'보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중요 가치로 자리 잡았고, 고령화에 맞추어 동선·대사·동작을 최소화하는 연출로 구성 방식도 유연하게 변화했음

⑤ 현재의 과제: 인구 감소와 참여 인력 부족

- 11년이 지난 현재, 축제의 가장 큰 위기는 지속적으로 들돌을 들 새로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임. 초기에는 마을 청년과 그 자녀 세대가 참여했으나, 반복 참여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인구 유출로 점차 한계에 부딪혔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개 모집, 외부 봉사단체, 청운대학교 학생, 외국인 노동자 참여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 참여자가 일정 수(3명 이상)를 넘기면 자연스럽게 흥행이 발생한다는 경험적 인식도 공유되었음. 다만 상금·상품 규모, 참여를 위한 시간 확보 등 현실적 제약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음

⑥ 외부 협력과 청년 인력 연계 가능성

- 2025년에는 청운대학교 학생들의 공연 참여(별주부전)가 이루어지며 긍정적 반응을 얻었음. 마을 측은 주민 공연과 학생 공연을 분리하되, 중간 교차와 피날레에서 결합하는 형태의 협업을 제안하였음. 정기적 상주가 아닌 행사 직전 단기 협업 방식도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되었음
- 또한 들돌의 유래와 놀이를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해 학교 방문 공연, 체험형 프로그

램(둘둘 들기·떡매치기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제시되었음. 이 경우 학생들에게는 창작·공연 경험과 일정 수준의 보상이 동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이 언급되었음

⑦ 축제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행정과의 긴장

- 대천마을회는 축제를 주민 화합과 공동체 즐거움을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면 단위·지역 단위 확장에 대해서는 갈등 가능성과 의미 훼손을 우려하고 있음. 행정 주도형 축제 전환에 대해 강한 경계가 존재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행정·재단 차원의 평가는 경제 효과와 지역축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마을축제의 본질과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⑧ 향후 방향에 대한 공감대

- 마을 측은 규모 확장보다 지속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으며, 인근 마을과의 점진적 교류, 가족 단위 외부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우리 마을의 재산은 주민"이라는 인식 아래, 자발적 참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인력과의 느슨한 연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음
- 본 인터뷰는 대천마을 둘둘축제가 단순 행사에서 출발해 공동체 기억과 세대 전승, 그리고 외부 협력을 통한 재맥락화의 가능성을 지닌 살아있는 문화 실천임을 보여주고 있음

⑨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대천마을회의 둘둘축제는 특정 공연이나 이벤트 중심의 지역축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기억과 신체적 경험을 핵심 자원으로 한 생활문화 축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가치를 지님. 둘둘 들기는 놀이를 넘어 농경사회에서의 통과의례, 노동력 인정, 공동체 내부 위계 형성이라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축제는 이러한 기억을 현재의 주민 삶 속에서 재연·재맥락화하는 장으로 기능해 왔음
- 축제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민 내부의 자발성과 흥이 주요

- 동력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인구 고령화와 참여 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음. 이에 따라 들돌축제는 놀이 중심 구조에서 문화예술 요소를 결합한 참여형 공연으로 전환되었고, 고령 어르신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형식과 연출을 조정하는 등 마을 내부 조건에 맞춘 유연한 진화를 보여주었음. 이는 마을축제가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확장'이 아니라 '조정'과 '재구성'을 필요로 함을 시사함
- 한편, 들들을 들 새로운 인력의 부족은 축제 지속성의 가장 핵심적인 위기로 나타났음. 공개 모집, 외부 봉사단체, 대학생 참여 등 다양한 대안이 시도되었으나, 단기적 흥행 효과를 넘어 안정적인 참여 구조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 과정에서 마을은 축제의 성격을 수익 중심이나 규모 확대형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 분명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주민 주체성과 공동체 즐거움을 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있음
 - 대학과의 협력 가능성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청운대학교 학생 참여 사례는 축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으며, 주민 공연과 외부 공연을 분리하되 결합하는 방식의 협업 모델은 마을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됨. 이는 대학-마을 협력이 상주형 개입이나 상업적 지원이 아니라, 행사 단위의 느슨한 연계와 상호 필요 기반 협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종합적으로 볼 때, 대천마을 들돌축제는 마을축제의 성공을 경제적 성과나 방문객 수로만 평가하는 기존 기준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음. 이 사례는 축제가 공동체 내부의 기억을 재생산하고, 세대 간 관계를 이어주는 문화적 장치이자 사회적 실천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향후 정책과 연구에서는 이러한 마을축제의 질적 가치와 지속 조건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지원 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임
 - 본 인터뷰는 대천마을 들돌축제가 '작지만 지속 가능한 축제', '확장보다 의미를 선택한 축제'로서 갖는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서, 향후 마을 단위 문화정책, 대학 연계형 지역문화 실험, 주민 주도 축제 모델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6) 인터뷰 6차 (문당리환경농업마을)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이 추진하고 있는 「발자국 소리 축제」를 중심으로, 마을의 축제 운영 배경과 환경농업 기반의 자원 특성, 마을 공동체 운영 철학, 중·장기 발전 구상, 그리고 대학–마을 협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은 국내 유기농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서, 생산 활동을 넘어 교육·환경·문화 영역으로 확장된 농촌 공동체 모델을 형성해 왔음. 본 인터뷰는 이러한 문당리의 축제와 마을 운영 사례를 연구과제 자료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마을 축제 모델과 농촌 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② 문당리 환경농업마을 축제의 형성 배경과 자원 특성

-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의 「발자국 소리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나 관광 이벤트의 차원을 넘어, 유기농 환경농업의 가치와 인간–자연 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기획된 축제임. 축제 명칭은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농업적 격언에서 유래하였으며, 농업이 기계적 생산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과 관심, 자연과의 지속적인 교감 속에서 유지된다는 철학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음
- 문당리는 논과 밭, 생태 하천, 농로, 마을 공간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환경농업 마을로, 이러한 공간 자체가 축제의 핵심 자원이 됨. 이 마을에서 축제는 특정 경관이나 상징물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의 과정과 자연의 순환을 직접 체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논 생태계, 수생 곤충, 농업 노동의 리듬과 시간성이 모두 축제의 콘텐츠로 전환되며, 이는 일반적인 경관 중심 축제와 구별되는 문당리만의 특징으로 평가됨

③ 마을 조직 구조와 운영 철학

-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은 현재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기농 생산 활동이 마을 공동체의 핵심 기반을 이루고 있음. 그러나 마을 구성원들은 농업 생산 중심의 조직 구조만으로는 교육, 문화, 관광, 축제 운영과 같은 복합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당리에서는 영농 기능과 자산·공간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 형태의 가능성을 모색 중임.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문당리 운영 철학의 핵심은 이른바 '100년 기획'으로 요약됨. 이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이나 일회성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고, 인구 구조, 환경 보전, 공동체 관계, 교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 발전 계획임. 축제 역시 이러한 100년 기획의 일부로 위치하며, 마을 철학을 외부에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④ 축제 운영 구조와 연간 기획 방식

-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의 축제는 연 1회 개최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연간 3회를 기본 구조로 하는 순환형 기획 체계를 갖추고 있음. 봄에는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땅에 감사를 전하는 마을 중심의 소규모 축제가 열리며, 여름에는 작물의 성장 과정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 중심 행사가 진행됨. 가을에는 외부 방문객이 참여하는 「발자국 소리 축제」가 개최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감사의 장이 형성됨
- 이 중 가을 축제는 문당리의 철학과 유기농 가치가 외부로 가장 적극적으로 전달되는 핵심 행사로 기능함. 축제 운영은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외부 인력이나 상업적 기획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운영 방식은 축제를 마을 일상과 분리된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 공동체 삶의 연장선으로 자리매김하게 함

⑤ 주요 축제 프로그램과 체험 콘텐츠 특성

- 문당리 환경농업마을 축제의 프로그램은 공연이나 관람 중심이 아니라, 농업과 생태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농악 길놀이와 논두렁 걷기, 발자국 다짐 퍼포먼스, 논 생물다양성 체험 등이 있음
- 특히 논 생물다양성 체험은 문당리 축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참가자들은 수생 곤충을 관찰하고 직접 채집하며, 논이 단순한 식량 생산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 공간임을 체감하게 됨. 이 외에도

토끼·거북이 교감 프로그램, 방아 짹기 체험, 유기농 먹거리 체험, 트랙터를 활용한 이동형 체험 프로그램(일명 '깡통열차') 등이 운영되고 있음

⑥ 공간 구성 방식과 마을 활용 전략

- 문당리 환경농업마을 축제는 특정 거점에 프로그램을 집중시키지 않고, 마을 전역을 체험 공간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방문객은 논, 밭, 체험장, 쉼터 등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경험하게 됨
- 이러한 공간 구성 방식은 마을 전체를 하나의 '열린 교육 공간'으로 인식하는 문당리의 운영 철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트랙터 기반 열차는 이동 자체를 하나의 체험 요소로 전환하며, 마을 공간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함

⑦ 방문객 특성과 교육적 가치

- 문당리 환경농업마을 축제의 주요 방문객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교육기관 단체임. 특히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비중이 높으며, 환경·생태·농업 교육에 대한 관심이 주요 방문 동기로 나타남
- 문당리는 '교육관 1호 마을'로서, 축제를 교육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음. 방문객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배우고 체험하는 학습자로 설정되며, 이러한 교육적 가치가 문당리 축제의 가장 중요한 차별적 경쟁력으로 평가됨

⑧ 향후 발전 구상과 확장 방향

-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은 향후 축제의 환경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여 생물다양성 대회 와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주말 단위의 상설 체험형 장터 운영을 통해 축제와 일상 운영을 연결하는 구조를 구상 중임
- 이러한 장터는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체험·교육·소규모 문화 활동이 결합된 생활형 문화 공간으로 설정됨. 기타 연주나 소규모 음악 공연과 같은 일상적 문화 활동의 유입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⑨ 대학-마을 협력에 대한 인식과 수요

-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은 대학과의 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본교와의 기존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의 구조화, 교육 콘텐츠 개발, 기록화 작업, 청년 인력 참여 확대 등에 대한 협력 수요를 제시하고 있음
- 마을 측은 자체 기획 역량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외부 전문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문당리 모델을 확산 가능한 사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⑩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문당리 환경농업마을 사례는 유기농·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한 가치 중심형 마을 축제 모델로서 높은 연구 가치를 지님. 축제를 장기 마을 기획의 일부로 통합하고, 교육·환경·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운영 방식은 일반적인 농촌 축제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임
- 향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 구조화, 기록화, 확산 전략이 보완될 경우,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은 단일 마을 사례를 넘어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 모델의 대표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본 인터뷰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서, 향후 연구과제 설계, 대학-지역 협력 사업 및 정책 제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7) 인터뷰 7차 (상황마을)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의 형성 배경과 운영 구조를 분석하고, 마을 지원 활용 방식, 주민 참여 특성, 재정 및 환경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마을축제의 지속 가능성 및 대학-지역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

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문화도시 사업 맥락 속에서 추진된 마을축제의 실제 운영 경험을 기록·분석한 연구자료로서, 행정 지원 체계와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 주민 주도의 축제가 지니는 사회적 가치와 한계를 동시에 조망하고자 함

② 상황마을의 형성과 배롱나무 경관 자원의 구축 과정

-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는 단기간에 기획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약 2015년 전후부터 추진된 마을 경관 조성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되었음. 당시 상황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느리실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음식체험장 개소와 함께 마을 진입로 경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이 과정에서 충북 이원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 축제의 핵심 자원이 되었음
- 배롱나무는 상황마을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한 산수동마을, 원단마을, 속동마을 경계까지 이어지는 선형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이 가로수길은 마을 진입 시 방문객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배롱나무 마을'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다만 배롱나무는 수종 특성상 생육 속도가 느리고 개화 시기가 짧아 관리와 활용에 제약이 따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이러한 한계를 감수하며 배롱나무를 마을 정체성의 핵심 상징으로 선택하였고, 그 결과 약 3년 전부터 이를 주제로 한 마을 축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③ 마을 구조와 공동체 기반 운영 체계

- 상황마을은 행정적으로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6~57가구, 100명 내외의 주민이 거주하는 중규모 농촌 마을임. 최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동식 주택 조성 계획이 논의되는 등 향후 인구 구조 변화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음
- 배롱나무축제는 특정 체험마을이나 일부 조직이 아닌, 상황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느리실마을 사무장은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보조

적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은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구조는 행정적 효율성보다는 마을 자치와 주민 합의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공동체 운영 방식에 가까움

- 특히 주목할 점은 축제 준비 과정이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임. 평상시에는 접점이 제한적인 주민들이 축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회의, 준비, 실행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있음

④ 축제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구성 특성

-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는 주로 마을회관과 그 인접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됨. 상황마을회관은 다른 농촌 마을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고 마당이 넓어, 공연·식사·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또한 인접한 교회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음향 장비를 협조받는 등 마을 내 자원을 유연하게 연계하여 축제를 운영하고 있음
- 축제 프로그램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민 공연(민요, 노래자랑 등), 주민 화합을 위한 게임, 공동 식사 순으로 진행됨. 프로그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구성이나, 주민 참여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공동체 중심 축제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남
- 이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프로그램은 '배롱나무 묘목 심기 체험'임. 이 프로그램은 방문객 체험을 넘어, 마을 주민이 각 가정에 배롱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마을 전체를 배롱나무 경관으로 확장하려는 장기적 구상을 담고 있음. 즉, 축제 프로그램이 단발성 체험이 아니라 마을 경관 형성과 직결된 실천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⑤ 운영상의 제약과 구조적 한계

-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가 직면한 가장 큰 한계는 기후 조건과 재정 구조임. 축제가 개최되는 8월 하순은 폭염 가능성성이 높은 시기로, 음식 준비와 행사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줌. 특히 외부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주민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

- 재정적으로는 외부 지원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중단 될 경우, 주민 자부담이나 마을 기금만으로 축제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분명하게 나타났음. 마을이 운영 중인 캠핑장은 전기료와 유지비를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축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음
- 또한 행정 공모 일정의 불확실성은 축제 준비 전반에 영향을 미침. 특히 배롱나무 묘목과 같이 사전 계약과 준비가 필요한 자원의 경우, 공모 일정 지연은 품질 저하와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되었음

⑥ 축제를 통한 마을 변화와 효과 분석

-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배롱나무축제는 마을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 우선 축제를 계기로 마을의 외부 인지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유튜브 및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상황마을을 접하고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음
- 내부적으로는 축제가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귀농·귀촌 인과 기존 주민이 공동의 행사를 준비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일상적 교류를 넘어선 의미를 지님. 주민들은 축제를 통해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는 경험을 공유하며, 이는 향후 마을 사업 추진의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고 있음

⑦ 대학-마을 협력에 대한 인식과 기대

- 상황마을은 대학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기대와 동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동안 대학과의 직접적인 협업 경험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
-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협력 수요는 비교적 분명함. 첫째, 마을축제 기획과 행정 업무에 대한 지원임. 둘째, 학생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기록화 작업임. 셋째, 개별 마을 단위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마을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역할임
- 마을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대학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기획·연결·아카이

빙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⑧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 사례는 경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농촌 마을축제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유지·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임. 강한 주민 참여와 공동체 결속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후·재정·행정 구조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축제의 지속 가능성에 제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 본 사례는 마을축제 지원 정책이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준비 과정과 주민 노동, 공동체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또한 대학-지역 협력은 단순 참여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 정리본은 향후 마을축제 정책 제안, 문화도시 사업 평가, 대학-지역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8) 인터뷰 8차 (오서산 상담마을)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충청남도 흥성군 오서산 자락에 위치한 상담마을에서 운영 중인 「콩두부 축제」를 대상으로, 소규모 마을축제의 운영 구조와 성격,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특히 본 사례는 마을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출발한 축제가 외부 인지도 상승과 방문객 증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환점과 과제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님

② 마을 및 축제 개요

- 상담마을은 약 50가구, 100여 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농촌 마을로, 오서산 등산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마을은 비교적 오랜 기간 부녀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과 마을 행사를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축적된 협업 경험은 현재의 축제 운영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 「콩두부 축제」는 2023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5년 현재 3회차를 맞이한 신생 마을축제임. 축제의 핵심 자원은 마을에서 재배·가공되는 '콩'이며, 두부와 콩국수, 콩가공 음식이 축제 콘텐츠의 중심을 이룸. 이 축제는 특정 공연이나 외부 연예인 중심의 이벤트형 축제가 아니라, 마을 주민의 일상적 노동과 생활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는 음식 기반 축제라는 점에서 특징적임
- 축제의 기획, 준비, 운영, 정리에 이르는 전 과정은 마을 내부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외부 업체의 참여는 최소화되고 있음. 이는 마을의 손맛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동시에 마을축제를 '주민의 행사'로 남기고자 하는 운영 원칙으로 해석할 수 있음

③ 축제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구성

- 상담마을 콩두부 축제는 전반적으로 '마을잔치형 축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 축제는 마을 주민 합창 공연을 오프닝으로 시작되며, 이는 축제의 시작을 주민 스스로 알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확인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함
- 이후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과 경품 행사가 진행되며, 이는 연령과 외부·내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콩 비누 만들기, 콩가루 팥빙수 및 팝콘 체험, 숲 향기 디퓨저 만들기 등이 운영되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특히 마을 어르신이 직접 참여하는 인절미 나눔 행사는 상담마을 축제가 단순한 소비형 행사가 아니라, 세대 간 역할 분담과 참여를 통해 공동체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임을 보여줌. 공연 프로그램 역시 인근 마을 주민자치회나 지역 공연팀이 참여하는 소규모 무대로 구성되어, 축제 전반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보조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

④ 참여 규모 및 운영 여건

- 축제 참여 규모는 1회차 약 450명, 2회차 약 250명으로 파악되며, 2회차의 경우 기상 악화가 참여 인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이후 마을은 축제의 적정 목표 규모를 약 500명 내외로 설정하고 있음. 방문객 구성은 광천, 홍성, 내포 등 인근 지역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며, 일부 세종 등 외부 지역 방문객도 포함되어 있음
- 상담마을은 비교적 넓은 마을 공간과 대형 주차장, 마을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소규모 축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또한 방송 프로그램 노출 경험으로 인해 마을에 대한 인지도 역시 일정 수준 확보된 상태임. 그러나 이러한 외적 조건은 동시에 방문객 증가에 대한 기대와 부담을 함께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⑤ 주요 쟁점 및 인식 분석 (축제 성격에 대한 인식 변화)

- 인터뷰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쟁점은 축제의 성격에 관한 문제였음. 상담마을 콩두부 축제는 본래 마을 주민이 함께 즐기기 위한 내부 결속형 행사로 기획되었으나, 외부 방문객 증가와 미디어 노출 이후 점차 지역 단위 축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이에 따라 마을 내부에서는 축제를 '편하게 즐기는 잔치'로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과,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축제가 커질수록 안전 관리, 운영 완성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이는 주민들에게 축제를 책임과 노동이 수반되는 행사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⑥ 주요 쟁점 및 인식 분석 (적정 규모에 대한 공감대)

- 상담마을은 고령화가 진행된 소규모 공동체로, 실제 축제 운영에 투입 가능한 인력은 제한적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을은 축제의 적정 수용 규모를 약 500명 내외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확대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는 외부에서 흔히 요구되는 '규모 확대 중심의 축제 성장 논리'와 대비되는 지점으로, 마을 내부에서는 축제의 지속성과 주민의 피로도 관리가 보다 중요한 가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⑦ 주요 쟁점 및 인식 분석 (음식 중심 운영 구조의 부담)

- 콩두부 축제의 핵심 경쟁력은 음식 콘텐츠에 있으나, 동시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이 기도 함. 두부와 콩 가공 음식 대부분을 부녀회가 직접 준비하면서, 고령화된 인력 구조 속에서 노동 강도가 누적되고 있음. 외부 업체 활용을 지양하고 마을 고유의 손맛을 유지하려는 원칙은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소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는 운영 구조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⑧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 인터뷰 참여자들은 축제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마을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보였음. 외부 방문객 확대나 수익 창출은 축제의 본질적 목적이 아 니며, 콩두부라는 핵심 정체성 또한 유지되어야 할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대학이나 청년 인력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사 보조 인력보다는, 음식 메뉴 개발, 조리 공정 간소화, 가공식품 개발 등 실질적으로 마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 는 방향의 협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⑨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오서산 상담마을 콩두부 축제는 마을잔치와 지역축제의 경계에 위치한 중간 단계 마을축제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본 사례는 소규모 마을축제가 외부로부터 '성공적인 축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내부적으로는 지속 가능성과 정체성 유지라는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줌
- 첫째, 마을축제의 성과 평가는 방문객 수나 외부 인지도보다 주민 만족도와 운영 지속 가능성을 중심 지표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음식 중심 축제의 경우 고 령화 현실을 고려한 노동 경감형 운영 모델과 중장기적 구조 개선이 요구됨. 셋째, 대학 및 청년과의 협력은 단기적 지원이 아닌, 마을의 현실과 맥락을 이해한 공동 설계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상담마을 콩두부 축제는 대규모 확장보다는 적정 규모 유지와 마을 정체성 보존을 통해 안정적인 지속 운영을 도모하는 전략이 적절하며, 이는 향후 마을 축제 정책 수립과 사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9) 인터뷰 9차 (원촌마을)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충청남도 흥성군 광천읍 원촌마을의 도시재생사업과 마을축제 운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원촌마을은 과거 구장터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공간으로, 약 93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도시재생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발적 마을 잔치에서 출발해 현재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된 핵심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음
- 본 인터뷰는 축제가 형성·변화해 온 과정과 그 배경에 놓인 문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아울러 축제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화합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②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배경과 경과

- 원촌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되었으며, 약 3년간의 예비 과정을 거쳐 2024년 최종 선정되었음. 본 사업은 단순한 행정 지정이 아닌, 주택 노후도, 상가 공실률, 인구 감소 등 복합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쟁형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마을은 광천읍 내에서도 과거 '구장터'로 기능했던 역사성을 핵심 명분으로 삼아 사업을 준비하였으며, 2024년 7월 충청남도 선정, 9월 국토교통부 최종 선정이라는 단계적 과정을 거쳐 전국 27개 후보 중 11개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음
- 총 사업비는 약 93억 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로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임.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은 연간 수십 차례 이상의 회의와 교육을 주도

하며, 도시재생사업이 '자연 발생적 지원'이 아니라 고도의 행정·조직 역량을 요구하는 과정임을 강조하였음

③ 도시재생과 마을 축제의 관계 인식

- 원촌마을에서 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 이장은 도시재생사업이 개인별 이해관계 충돌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구조임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고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마을 잔치(축제)'라고 설명하였음
- 실제로 원촌마을 축제는 도시재생 예산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시기를 제외하면 약 7년 이상 지속된 마을 행사임. 현재는 마을만들기 사업 및 도시재생센터 지원과 연계되어 4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축제는 주민 대상 사전 홍보(반장 전달, 수건 배포 등)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며, 주민 누구나 식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비판적이던 주민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④ 원촌마을 축제 콘텐츠 변화 과정

- 원촌마을 축제 콘텐츠는 주민 화합이라는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음. (1) 1단계: 개인 윷놀이 대회 → 경쟁 과열 및 개인화 문제 발생, (2) 2단계: 단체 윷놀이 대회(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 재미는 있으나 지속 시간과 확장성 한계, (3) 3단계: 마을 노래자랑 도입 → 참여 확대 및 세대 간 교류 활성화
- 2024년에는 마을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노래자랑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15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였음. 2025년에는 광천읍 단위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장사의 기념관 개관 시 전국 단위 노래자랑으로 발전시키는 중장기 구상을 갖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상금 규모, 참가자 선발 방식(선착순), 심사 방식(노래방 기기 점수 활용) 등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운영되고 있음

⑤ 축제 운영 구조와 예산 운용 방식

- 원촌마을 축제의 공식 지원금은 약 927만 원 규모로, 이 중 약 300만 원이 음식 준비에 사용됨. 그러나 실제 축제 운영에는 지원금 외에도 주민 찬조금, 마을 자체 기금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
- 국비로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수건, 술, 일부 상품 등)은 마을 기금으로 충당하며, 전체 축제 운영을 위해 약 400만 원 내외의 마을 자부담이 발생함. 이러한 구조는 축제가 '외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마을 자치형 행사'임을 보여줌
- 축제 기획안과 예산은 모두 개발위원회를 통해 사전 공유·합의되며, 이를 통해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음

⑥ 문화 프로그램 및 주민 역량 강화 활동

- 원촌마을은 축제 외에도 (1) 하모니카 공연단, (2) 일심 할머니회 건강체조, (3) 미술 작가 프로젝트 및 공원 전시, (4) 바리스타 및 한식 조리 교육, (5) 마을 협동조합 설립 및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이러한 프로그램은 도시재생 종료 이후를 대비한 자립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향후 카페·식당 운영과 장사의 기념관 연계 수익 모델로 확장될 예정임

⑦ 원촌마을의 역사 자원과 서사

- 원촌마을은 과거 바닷물이 직접 유입되던 해안 인접 지형에 위치한 마을로, 방조제 축조 이전까지는 갯벌과 해상 교통을 기반으로 한 생활·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음. 이 시기 원촌 일대는 수로와 갯벌을 활용한 어업과 물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 졌으며, 자연스럽게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교류의 거점으로 기능하였음. 이후 방조제 건설과 매립을 거치며 해안 환경은 변화하였으나, 이러한 지형적 기억은 마을의 공간 구조와 주민 인식 속에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남아 있음
- 원촌마을은 특히 '구장터'로 불릴 만큼 장시(場市) 기능이 발달했던 공간으로, 단순한 경제 활동의 장소를 넘어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소식을 교환하고 관계를 형성하던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음. 장터를 매개로 형성된 개방성과

- 교류의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마을 축제와 공동체 활동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며, 원촌마을이 외부 방문객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문화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
- '원촌(院村)'이라는 지명은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던 '원(院)'의 존재, 즉 관아·사택·역원과 같은 공적 시설이 자리했을 가능성과 연관된 다양한 구전 서사를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지명 유래는 원촌마을이 단순한 농어촌 취락이 아니라, 일정한 공공적·제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공간이었음을 시사하며, 마을의 역사적 위상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로 기능함
 - 아울러 원촌마을 인근의 '신대(새터)' 마을과의 대비는 공간적·시간적 층위를 드러내는 서사 구조를 형성함. 기존의 장터 중심지였던 원촌과, 이후 형성된 새로운 거주지인 신대의 관계는 마을의 확장과 이동, 생활권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는 지역 역사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지형·장터·지명·인근 마을과의 대비로 축적된 원촌마을의 역사 자원과 서사는 향후 마을축제 및 문화콘텐츠 기획 과정에서 핵심적인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경우, 과거의 공간 기억을 현재의 축제 경험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서사 기반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⑧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원촌마을 사례는 (1) 축제는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관리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 (2) 대규모 외형 확장보다 주민 화합과 내부 합의 구조 유지가 지속성의 핵심임, (3) 역사 자원과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결합은 소규모 마을 축제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음, (4) 외부 홍보를 절제하는 태도는 마을 간 갈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 가능, (5) 협동조합·교육·축제를 연계한 구조는 도시재생 이후 자립 모델로 주목할 만함 등의 시사점을 제공함
- 원촌마을 축제는 '키우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지속하기 위한 축제'라는 점에서, 향후 마을축제 정책 및 지원체계 설계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됨

(10) 인터뷰 10차 (이더러문화보존회)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홍성군 마을축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이더러 문화보존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마을축제의 철학·운영 방식·지속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인터뷰 대상은 이더러 문화보존회를 이끌어 온 핵심 마을 리더로, 홍성군 마을만들기 및 마을축제 초기 단계부터 장기간 관여해 온 인물임

② 홍성군 마을축제의 형성과 확산 과정

- 인터뷰 참여자는 홍성군 마을축제의 출발점을 전라북도 진안군 사례에서 찾고 있음. 진안군은 군 단위 마을축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마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마을축제'를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시킨 선형 사례로 평가됨. 이 사례는 축제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역 문화의 집합적 표현으로 조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되었음
- 홍성군의 경우, 초기에는 결성면 원촌마을, 은하면 대천마을, 흥동면 반교마을 등 소수의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축제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되면서 점차 확산되었음. 특히 마을축제 교육 이수와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마을 별 고유 문화 발굴을 축제의 핵심 조건으로 설정한 점이 특징적임. 그 결과 홍성군에서는 최대 29개 마을까지 축제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평가됨
- 그러나 이러한 확산은 단순한 수적 증가가 아니라, '마을 문화에 기반한 축제'라는 명확한 철학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③ 마을축제에 대한 철학과 운영 원칙

- 인터뷰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인식은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문화이며, 그 정점에 축제가 있다"는 점임. 축제는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즐기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문화적 과정으로 이해됨

- 첫째, 주민 주체성의 원칙임. 축제는 주민이 재미있어야 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남. 이를 위해 초기 축제는 소규모 예산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민 자부심을 통해 무리하지 않는 규모의 축제를 유지하였음. 이는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축제의 형식이 경직되고, 주민 부담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임
- 둘째, 마을 고유 문화의 발굴임. 외부 공연, 유명 가수 초청, 불꽃놀이 등은 마을축제의 본질과 거리가 먼 요소로 인식됨. 대신 음식 문화, 생활 문화, 전통 의례 등 마을 내부에 존재하는 자원을 재해석하여 축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
- 셋째, 성별·연령 구분 없는 참여 구조임. 축제 준비와 운영에서 특정 집단(특히 여성)에게 노동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남녀노소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 마을축제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됨

④ 이더러 우물축제의 형성과 서사 구조

- 이더러 우물축제는 홍동면 반교마을에 위치한 '이더러 샘'을 중심으로 형성된 축제임. 이 우물은 백제시대부터 현재까지 마르지 않고 유지되어 온 것으로 전해지며, 마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자원임
- '이더러'는 충청남도 흥성 지역 방언으로 '바로 이웃'을 의미하며, 이더러 샘은 '우리 곁에 있는 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 마을에서는 이 우물을 단순한 물 공급 시설이 아닌, 공동체의 생명과 연결된 문화적 장소로 인식해 왔음
- 우물축제는 국화 식재 활동, 마을 유래 조사, 우물제(용왕제) 복원 등을 거치며 점차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음. 특히 우물제는 우물을 '용궁으로 통하는 문'으로 해석하는 전통적 인식을 바탕으로, 별주부전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공연 콘텐츠와 결합되었음. 드론, 현대 도시 설정 등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K-별주부전'은 전통 서사를 현재의 생활 맥락 속에서 재해석한 사례로 평가됨

⑤ 공동체 문화활동과 축제의 결합

- 이더러 우물축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마을 내 문화활동의 축적과 그것의 축제

화임. 대표적인 사례가 '반교 할매 화가들'임. 고령의 여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미술 활동은 동아리로 발전하였고, 지역과 전국 단위의 주목을 받으며 마을의 상징적 문화 자산으로 자리 잡았음

- 이러한 일상적 문화활동은 축제 기간에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되며, 축제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문화활동의 결과물로 만드는 역할을 함. 이는 마을축제가 주민 복지와 문화 향유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⑥ 제도·행정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한계

- 인터뷰에서는 최근 마을축제 운영 환경이 제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제기됨.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행정 시스템은 중앙정부 기준의 계획서·정산 절차를 요구하며, 이는 마을 단위 주체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중간 지원 조직의 부재는 마을축제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과거에는 마을과 행정 사이에서 기획·정산·컨설팅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이러한 역할이 약화되면서 마을 리더들의 과로와 소진이 누적되고 있음

⑦ 지속가능한 마을축제를 위한 조건과 제언

- 인터뷰 참여자는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음. 첫째, 마을축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는 특정 사업이나 정부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마을축제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식됨
- 둘째, 군 단위의 통합적 마을축제 플랫폼 구축임. 개별 마을축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홍성군 전체의 문화 지형을 보여주는 방식은 진안군 사례와 유사한 발전 방향으로 제시됨
- 셋째, 대학과의 협력임. 청운대학교와 같은 지역 대학은 인적 자원, 예술 콘텐츠,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마을축제의 콘텐츠 고도화와 기록·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됨

⑧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이더러 문화보존회 사례는 마을축제가 주민 문화 복지, 공동체 회복, 지역 정체성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동시에 제도적 지원 구조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축제의 지속 가능성에 급격히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사례는 마을축제를 '관광 상품'이 아닌 '생활 문화의 집약체'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홍성군 마을축제 정책과 문화도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11) 인터뷰 11차 (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궁리항·하리마을·해상공원 일대를 포괄하는 마을축제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문화·예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수행되었음. 특히 기존 마을축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와 지역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전통 문화 자산과 현대 예술 콘텐츠의 결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② 천수만권역 마을 구조 및 축제 운영 현황

- 천수만권역은 궁리항과 하리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촌 지역으로, 어촌계·선주협회·마을 조직·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이 병존하는 복합적인 운영 구조를 지니고 있음. 이러한 조직들은 생업과 생활을 기반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문화·축제 영역에서는 통합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지 못한 채 각기 분절적으로 기능해 온 것이 현실임
- 현재 마을축제는 주로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소규모 보조금(약 1천만 원 내외)에 의

존하여 연 1회 단발성 행사로 개최되고 있음. 축제 공간은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해상테마파크(해상공원) 인근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명확한 축제 콘셉트와 장기적 운영 전략의 부재로 인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인터뷰 참여자들은 기존 축제가 주민 화합이라는 1차적 기능은 수행해 왔으나, 외부 방문객을 유인하고 체류를 유도하는 문화 콘텐츠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 공통적으로 동의하였음. 특히 먹거리 부스와 간이 행사 위주의 구성은 축제를 일회성 소비 행사로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마을의 이미지 제고나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③ 주요 쟁점 1: 기존 마을축제에 대한 한계 인식

- 인터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의식은 기존 마을축제가 '먹고 마시고 끝 나는 하루짜리 잔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음. 축제가 끝난 이후 마을에 남는 것이 거의 없으며, 반복 개최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특히 안면도로 향하는 대규모 관광 동선이 궁리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궁리항이 여행의 시작점이나 경유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는 단순한 홍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한 콘텐츠와 공간 경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공유되었음
- 이와 같은 인식은 축제를 단순한 주민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의 정체성과 서사를 담아내는 문화적 장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

④ 주요 쟁점 2: 해상공원(해상테마파크) 활용의 구조적 문제

- 해상공원은 천수만권역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었음. 공유수면이라는 행정적 특성으로 인해 입장료 징수, 상설 매점 운영, 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에 제약이 따르며, 이로 인해 관리·운영 주체 역시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음
- 마을 주민들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실질적인 혜택

이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표명하였음. 관리 책임은 있으나 활용 권한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 참여와 자발적 관리 동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해상공원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축제와 문화 프로그램의 중심 무대로 재기획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공연, 제의, 전시, 체험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환될 경우, 관광객 유입과 체류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공유되었음

⑤ 주요 쟁점 3: 세대 구조와 외부 협력의 필요성

- 천수만권역 마을의 또 다른 현실적 제약은 급격한 고령화임. 인터뷰 참여자들에 따르면 마을 구성원의 다수가 70~80대 고령층으로, 축제 기획과 운영, 홍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물리적·역량적 한계가 분명함
-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인력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대학과 청년 예술인의 참여는 축제에 새로운 감각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음. 본교 학생들과 교수진이 기획·콘텐츠·운영 전반에 동반자로 참여할 경우, 마을은 실행 부담을 덜고 대학은 현장 기반 교육과 창작 기회를 확보하는 상호 호혜적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⑥ 주요 쟁점 4: 풍어제 경험과 전통 문화 자산

- 선주협회 측에서는 과거 진행되었던 풍어제 중심 축제의 경험을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언급하였음. 당시 풍어제는 배 행렬, 깃발, 팽과리, 제의적 요소가 결합된 상징적 행사로, 언론 보도와 외부 관심을 이끌어내며 궁리항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 현재 해상공원 축제에 포함된 소원 연 날리기, 기원 의례 등 역시 이러한 풍어제 전통에서 기원한 요소로 확인되었음. 인터뷰 참여자들은 전통을 단순히 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음

⑦ 대학 연계 예술축제 구상과 확장 가능성

- 박칠순 교수는 청운대학교의 공연·영상·조리 관련 학과 차원을 활용한 '궁리항 석양 예술축제' 구상을 제안하였음. 이는 기존 해상공원 축제와 병렬적으로 운영하되, 동일한 시기와 인접한 공간에서 개최하여 외부 방문객에게는 하나의 통합 축제로 인식되도록 하는 전략임
- 주요 콘텐츠로는 자연·환경 서사를 반영한 공연, 해질녘 석양을 활용한 음악 및 퍼포먼스, 소규모 영상 상영, 푸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논의되었음. 이는 궁리항의 한적함과 자연성을 한계가 아닌 예술적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⑧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본 인터뷰는 천수만권역 마을축제가 단순한 행사 개선의 차원을 넘어,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 궁리항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음을 보여줌. 축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마을 환경 개선, 세대 간 연결, 외부 인력 유입, 관광 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적 매개로 인식되고 있음
- 향후 연구 및 정책 설계 과정에서는 ▲전통 제의와 현대 예술의 결합 모델, ▲대학-지역 협력 기반 축제 운영 구조, ▲해상공간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핵심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본 인터뷰 정리본은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12) 인터뷰 12차 (홍북읍주민자치지역발전계획단)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홍북읍 주민자치 지역발전계획단이 기획·운영한 마을축제 「석택리의 비밀」의 기획 배경과 운영 과정, 성과 및 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마을축제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특히 본 인터뷰는 단일 축제의 사례 분석을 넘어, 주민자치 기반 지역발전 조직이

문화행사를 매개로 지역 정체성과 경제·사회적 실험을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둠

② 홍북읍 주민자치 지역발전계획단의 설립 배경과 조직적 성격

- 홍북읍 주민자치 지역발전계획단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정책적 틀 속에서 출범한 주민 주도 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보완·확장하는 성격을 지님. 본 계획단은 단순히 행정 사업을 집행하는 실행 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주민 스스로 구상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험·검증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
- 계획단은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출범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지역 현안 분석, 우선순위 설정, 사업 기획 역량을 축적해 왔음. 특히 홍북읍의 공간 구조, 즉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두 공간을 연결하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는 점이 특징적임
-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단은 '주민자치 지역발전계획단'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주민자치회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실험적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③ 「석택리의 비밀」 축제 기획 배경과 문제의식

- 「석택리의 비밀」은 홍북읍 주민자치 지역발전계획단이 주관한 첫 번째 축제로, 계획단의 조직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시험하는 시도이자, 지역 고유 자원의 문화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로 기획되었음
- 계획단이 우선적으로 주목한 과제는 '시세장터' 운영이었음. 이는 구도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신도심 주민들에게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내부의 경제 순환 구조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음. 축제는 이러한 시세장터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매개 장치로 활용되었음
- 축제의 핵심 주제는 홍북읍 석택리 일대에서 발굴된 마한 시대 환호 유적(칠학지 구)이었음. 해당 유적은 원삼국시대 이전 공동체의 방어와 생활 양상을 보여주는 환호 유적으로,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로 평가될 만큼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임. 그러나 발굴 이후 대부분 복토되면서 지역 사회와 대중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채 잊혀져 왔음

- 계획단은 이 유적이 단순한 지역 문화재를 넘어, '홍주 1000년'이라는 통상적 역사 인식을 '홍주 2000년'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상징적 서사라고 판단하였음. 이는 홍북 읍 차원의 마을축제를 넘어, 홍성군 및 충청남도 차원의 역사·문화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의식으로 확장됨

④ 축제 콘텐츠 구성과 운영 전략

- 「석택리의 비밀」 축제는 마한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고증에 기반한 상상적 재현'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기록과 유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계획단은 학술적 확정이 아닌 '가능성의 영역'을 존중하며 주민과 방문객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축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축제의 주요 콘텐츠는 첫째, 마한 시대 복식과 생활 양식을 상상해 재현한 포토존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이 시각적으로 축제의 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당시의 식생활을 연상시키는 고기 수육, 편육 등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역사적 상상'과 '미각적 경험'을 결합하였음. 셋째, 보부상 행렬 재현, 주민 참여 퍼포먼스,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춤과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를 관람 중심이 아닌 참여형 행사로 구성하였음. 넷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왕관 만들기 체험, 투호·윷놀이·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 간 참여 폭을 확대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음
- 아울러 축제 장소를 신도심 유동 인구가 많은 시민광장 인근에 배치하고, 명절 전날 저녁이라는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방문객 유입과 시세장터의 실질적 성과를 동시에 도모하였음

⑤ 운영 성과와 사회적 파급 효과

- 본 축제는 주민 참여도와 방문객 반응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축제에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신도심 거주자, 우연히 공간을 지나던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였음

- 특히 마한 시대 유적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반응이 도출되었음. 홍성군수는 해당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들은 축제를 통해 처음으로 석택리 유적의 존재와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문화재청 차원의 추가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또한 축제와 연계한 생활용품 교환·판매 실험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 학생 장학금으로 환원함으로써, 축제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지님

⑥ 한계와 구조적 과제

- 한편 석택리 유적은 발굴 이후 대부분 복토된 상태로, 현장 방문 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축제 콘텐츠 확장의 근본적 한계로 지적됨. 또한 문헌 기록과 실물 유물의 부족은 역사적 서사를 구체화하고 전문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학술 연구 기관, 문화재 관련 전문 조직, 디지털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주체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음

⑦ 축제의 확장 가능성과 발전 방향

- 계획단은 「석택리의 비밀」이 홍북읍 단위의 마을축제를 넘어, 홍성군 및 충청남도 차원의 역사문화축제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함. 마한 시대 유적이라는 서사는 지역 정체성 형성, 청소년 역사 교육,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연계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특히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이 고대사와 연결된 역사적 현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 자긍심 형성과 문화적 자산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⑧ 대학-지역 협력 가능성

- 본교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계획단은 전반적으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음. 축제 기획, 공연·전시 콘텐츠 개발, 청년 인력 참여, 지역 특산물 활용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의 전문성과 청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축제의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청년 인재 양성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점임
- 특히 대학 재학생 및 청년 예술인에게 장학금과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마을축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방식은 지역과 대학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⑦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흥북읍 주민자치 지역발전계획단이 기획한 「석택리의 비밀」 축제는 주민 주도의 실행 역량을 기반으로, 잠재적 역사 자산을 문화적 콘텐츠로 전환하려는 의미 있는 첫 시도라 할 수 있음
- 본 축제는 문화적 실험이자 경제적 실험, 그리고 지역 정체성 재구성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향후 학술·행정·청년 인력과의 유기적 협력이 결합될 경우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

(13) 인터뷰 13차 (홍성읍 오관2리 경로당)

① 인터뷰 개요

- 본 인터뷰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2리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홍고통 행복마을축제'의 운영 배경과 변화 과정, 그리고 향후 지속 가능성과 대학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인터뷰는 마을 축제 기획자 라운드 테이블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마을 축제를 둘러싼 행정·문화·공동체적 맥락

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음

② 오관2리 마을의 공간적 · 사회적 특성

- 홍성을 오관2리는 홍성터미널과 홍성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원도심 마을로, 이른 바 '홍고통'이라 불리는 골목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권을 지니고 있음. 해당 지역은 농촌 마을과는 다른 도시형 주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공무·자영업 종사 경력을 가진 고령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신촌아파트를 중심으로 70대 후반에서 80대 이상의 고령 주민이 밀집 거주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 아파트 구조로 인해 이동성이 제한된 고령층의 일상적 생활 여건이 두드러짐. 이들 다수는 오랜 기간 홍성을 원도심에 거주해 온 주민으로, 지역의 변화 과정을 직접 경험한 세대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오관2리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위치한 고령 원도심 마을'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며, 이는 마을 축제와 문화예술 활동의 기획 방향에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함

③ 홍고통 행복마을축제의 형성과 운영 배경

- 홍고통 행복마을축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초기에는 골목 활성화와 상권 회복을 주요 목표로 기획되었음. 축제의 행정적 주체는 일관되게 오관2리 경로당, 즉 마을 공동체였으나, 실제 기획과 운영은 외부 청년 기획자와 청년 예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초기 축제는 청년 공연, 야간 프로그램, 푸드트럭 등 비교적 젊은 층을 주요 타깃으로 한 콘텐츠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홍고통이라는 공간을 외부에 알리고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음.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음
- 무엇보다도 실제 거주 주민인 고령층의 참여도가 낮았으며,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청년들만의 축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음. 또한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시도 역시 상인들의 소극적 참여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④ 기존 축제 운영에 대한 문제 인식

-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축제의 주체성과 대상 간의 괴리였음. 형식적으로는 마을이 주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외부 기획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은 관객 혹은 방관자의 위치에 머무르게 되었음
- 특히 고령 주민들은 야간 중심의 프로그램, 짧은 총 위주의 콘텐츠, 노동 강도가 높은 참여 방식 등에 부담을 느꼈으며, 그 결과 축제 참여 자체를 꺼리는 경향을 보였음. 이러한 상황은 마을 공동체 내부의 결속보다는 오히려 거리감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음. 홍고통 상권의 상인들은 축제 참여를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하였고, 주말 영업 및 휴식 주기와 축제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라는 축제의 초기 목표는 점차 설득력을 잃게 되었음

⑤ 2025년 축제의 방향 전환: 주민 주체성 회복

- 2025년 홍고통 행복마을축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축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고자 하였음. 가장 큰 변화는 축제의 중심을 청년에서 주민, 특히 고령 어르신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임
- 이번 축제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축제'를 명확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고령 주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낮 시간대 운영, 돌봄과 환대의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 구성을 특징으로 함. 이는 단순한 콘텐츠 변경을 넘어, 축제의 가치와 의미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⑥ 시니어 문화예술 교육과 축제 콘텐츠의 연계

- 이번 축제의 핵심 콘텐츠는 약 1년간 총 25회차에 걸쳐 진행된 시니어 미술 수업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임. 해당 수업은 외부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고령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정서적 활력을 제공하였음

- 어르신들은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작품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음. 작품 전시는 단순한 결과 발표를 넘어, 고령 주민들이 여전히 사회적·문화적 주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지역사회에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

⑦ 돌봄형 축제 모델의 시도

-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의 푸드트럭 중심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대접' 형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였음. 이는 노동을 요구하는 판매형 참여가 아닌, 마을 공동체가 어르신을 돌보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돌봄형 축제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주민 장기자랑, 어르신 친화적 공연, 공예 및 미술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었으며, 이는 축제를 통해 주민 간 정서적 교류와 공동체적 유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함

⑧ 세대 간 관계와 청년과의 연계 가능성

- 비록 축제의 중심은 주민이지만, 청년과의 단절을 지향하지는 않음. 인터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시니어와 청년 창업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공유되었으며, 이는 상호 이해와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음
- 다만 행정적·운영상의 이유로 인해 청년 야간 행사와 마을 축제가 시간적으로 분리 운영되면서, 세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도 드러났음

⑨ 지속 가능성의 조건과 구조적 한계

- 오관2리의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 운영은 현재 외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마을 차원의 자발적 재정 조성 경험이 부족하며, 주민들 역시 축제를 '스스로 운영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외부 지원 사업의 결과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이번 축제는 주민 주도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마을담당자의 개인적 헌신과 중간자적 역할이 축제 성립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⑩ 본교와의 협력 가능성 및 시사점

- 마을 측은 본교와의 협력에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기대를 가장 현실적인 요구로 제시하였음. 동시에 라이즈 사업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해를 보였음
- 오관2리 사례는 원도심 고령 마을에서 문화예술 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향후 대학 연계 사업은 새로운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공급하기보다, 이미 형성된 주민 중심의 문화 흐름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확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⑪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홍성읍 오관2리 홍고통 행복마을축제는 청년 중심 골목 활성화 축제에서 주민 돌봄과 문화 향유 중심의 마을 축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놓여 있음. 본 사례는 고령화된 원도심 마을에서 축제가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재고하게 하며, 주민 주체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함

3) 종합분석

(1) 마을축제 참여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화 구축

- 흥성군 마을축제는 오랜 기간 축제를 이끌어 온 소수의 마을 리더에게 기획과 운영의 책임이 집중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체력적·정신적 부담과 운영 피로가 누적되고 있음
- 축제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개인 단위에 머물러 체계적으로 공유·전승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외부 인력의 참여 역시 일회적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인력 재생산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마을축제를 특정 세대의 헌신에 의존하는 형태로 고착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축제의 지속 가능성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마을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인력을 단순한 행사 인력이 아닌 학습·축적·성장 가능한 축제 운영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마을축제 운영 체계를 개인 중심에서 벗어나 기획·운영·기록·홍보·연계 등의 기능별 역할 분담 구조로 전환하고, 흥성군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이 각자의 필요와 동기를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경로를 명확히 설계해야 함
- 우선, **흥성군 내 청년**에게는 마을축제를 지역 기반 실무 경험과 기획 역량을 축적 할 수 있는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착과 사회적 역할 수행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축제 기획, 콘텐츠 운영, 홍보 실무 참여를 통해 청년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본교 재학생**에게는 마을축제를 현장 중심 교육과 연계된 실습·프로젝트 공간으로 설정하여, 전공 역량을 실제 지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며, 마을에는 전문성과 기획력이 보완되는 상호 호혜적 구조로 작동할 것임
- 중장년층에게는 그간 축적된 사회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축제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참여와 기여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세대 간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축제 운영

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귀농·귀촌 인구에게는 마을축제를 지역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매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축제 참여 과정에서 마을 주민과의 협업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이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관계 형성과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참여 인력이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제 운영 매뉴얼, 역할별 교육 프로그램, 기록 기반 학습 체계를 병행하여 구축함으로써, 마을축제가 일회성 참여가 아닌 인력 양성과 공동체 학습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2)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중간지원체계 구축

- 현재 마을축제는 중앙정부 및 군 단위 행정 기준에 따른 계획서 작성과 정산 절차를 마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구조로, 행정 역량이 제한된 마을 단위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과거 마을과 행정 사이를 연결하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약화는 축제 운영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군 단위에서 마을축제를 전담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복원하여, 기획·행정·정산·컨설팅 기능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마을축제에 특화된 간소화된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행정 절차가 아닌 축제 본연의 기획과 실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3) 재정 지원 주체의 변경 및 다년 지원을 통한 안정성 구축

- 현재 홍성군 마을축제는 단년도 소액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제가 연 1회 단발성 행사에 머무르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재정 지원이 문화관광 중심 기관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축제가 관광 이벤트나 단기 성과 중심 사업으로 인식되는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구조는 마을축제를 주민 생활문화와 공동체 형성의 과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만들며, 중·장기 기획과 콘텐츠 축적, 참여 인

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마을축제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주체를 문화관광 중심 기관에서 벗어나 군 단위 마을만들기 지원부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마을축제를 관광 사업이 아닌 마을 공동체 기반 사업으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주민 주도성과 생활문화 축적을 핵심 가치로 삼는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함
- 아울러, 재정 지원 방식을 단년도 보조에서 벗어나 다년 지원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마을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지원 평가 역시 축제 당일의 외형적 성과에 한정하지 않고, 기획 준비 과정, 주민 참여의 폭과 깊이, 연중 문화활동과의 연계 여부, 마을 내 학습과 협력 구조의 형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 중심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마을축제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마을만들기 과정의 핵심 실천 도구로 기능하게 되며, 재정 지원은 축제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기반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임

(4) 마을 고유의 문화가 집약된 축제 정체성 확립

- 일부 마을축제는 외부 관광객 유치와 단기적 성과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면서, 마을 고유의 생활문화와 공동체적 의미보다 이벤트성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로 인해 축제가 주민 스스로의 삶과 문화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외부 시선을 의식한 형식적 행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 주체성의 약화와 축제 정체성의 혼선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축제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한 내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적 확장을 추구할 경우, 축제가 마을 공동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 마을축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축제를 마을문화 기반의 실천 장치로 재정의하고, 마을 고유의 역사·문화·공간·생활 경험이 집약된 공동체적 의미를 핵심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축제 콘텐츠는 마을이 지닌 고유성과 주민의 일상적 문화활동에서 출발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함
- 다만, 모든 마을축제가 동일한 목적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일부 마을의 경우에는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충분히 축적된 이후 이를 외부와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려는 방향성 또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관광 연계는 축제의 본질을 대체하는 목표가 아니라, 마을문화 기반 정체성을 확장·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되어야 함
- 따라서 마을축제 운영에 있어서는, 각 마을의 여건과 발전 단계에 따라 ▲공동체 회복과 생활문화 강화에 중점을 둔 축제, ▲마을 고유성을 기반으로 외부 교류와 경제적 효과를 함께 도모하는 축제 등으로 운영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균형 있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목표 설정은 마을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과 지원 기관은 이를 존중하는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5) 마을축제의 기록·아카이빙 체계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 현재 마을축제의 기획 과정과 운영 경험, 성과는 개별 담당자나 마을 단위의 비공식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축제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자산으로 남지 못하고 소실되며, 세대 간·마을 간 공유 역시 제한적인 상황임. 특히 축제가 반복적으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이전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재현되고 축제의 질적 발전이 정체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마을축제를 일회성 행사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록과 축적을 전제로 한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마을축제 기록·아카이빙을 전담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이 플랫폼은 축제 기획 단계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진·영상·구술 기록·운영 일지·프로그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특히 본교와의 협력을 통해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기록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본교는 문화예술, 공연, 영상, 기록·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축제 기획, 수집, 해석, 콘텐츠화를 담당하고, 대학생 참여를 통해 기록 활동을 교육·실습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인력 양성과 기록 축적을 동시에 실현 할 수 있음

- 아울러, 플랫폼에 축적된 기록 자료는 단순 보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축제 기획을 위한 참고 자료, 마을 간 사례 공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지역 문화자산 콘텐츠로 확장·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이를 통해 마을축제는 매년 새로 시작하는 행사가 아니라, 축적된 경험 위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학습형·순환형 축제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

(6) 대학 및 지역 청년 인력과의 구조적 협력체계 구축

- 마을축제 운영 과정에서 대학 및 지역 청년 인력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행사 당일 보조 인력 투입이나 단기 참여에 그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마을에는 지속 가능한 전문 인력 축적을 남기지 못하고, 대학과 청년에게는 학습·성장·경력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그 결과 마을과 대학 간 협력이 일회성 교류로 소진되며, 상호 신뢰와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
- 대학 및 지역 청년 인력을 단순한 인력 공급 주체가 아닌, 마을축제의 기획·연구·기록·콘텐츠 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협력 파트너로 재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축제 준비 단계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과 청년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중·장기 협력 플랫폼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병행되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마을축제 참여를 전제로 한 장학금 지원, 대학의 정규 교과 및 비교과 과정과 연계한 학점 인정 및 수업 운영, 학생·청년이 기획·제작한 창작 결과물의 축제 현장 구현 및 공개, 나아가 기록·콘텐츠·운영 분야에서의 단기·중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참여의 타당성과 동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지원책은 대학과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임
- 궁극적으로 이는 마을축제가 지역 내 청년과 대학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 기반 학습·일자리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7) 홍성군 마을축제 네트워크 구축

- 현재 홍성군 내 마을축제는 개별 마을 단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축제 운영 경험과 노하우,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가 제한적인 상황임. 이로 인해 유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개별 축제의 성과가 군 전체 차원의 자산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마을 간 일정 중복, 홍보 역량의 편차 등으로 인해 축제의 파급력과 외부 인지도 역시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홍성군 마을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축제를 연결하는 군 단위 마을축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상시적 협력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해당 네트워크는 마을 간 축제 운영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 전략을 수립하며, 축제 일정의 연계와 조정을 논의하는 실질적 협의체로 기능해야 함
- 아울러,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홍성군 마을축제의 발전 방향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논의·조정하는 협의체로 성장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각 마을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군 전체 차원의 문화 지형 속에서 마을축제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지속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사업의 모색이 병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공동 기록·아카이빙 사업, 군 단위 마을축제 공동 브랜드 구축,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순회형 기획 프로그램 등은 네트워크 참여의 실질적 동기를 제공하는 중심사업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이러한 중심사업을 매개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홍성군 마을축제는 개별 행사의 집합을 넘어 연결된 문화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임

제4장 본교와의 협력 방안

1. 비전 및 목표

- 본교는 홍성군 마을축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교육·연구·기록 역량)을 활용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축제를 지역 기반 학습과 공동체 형성의 핵심 실천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홍성군 마을축제가 일회성 행사 중심 운영을 넘어, 주민 주도의 마을문화가 축적되는 지속 가능 공동체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첫째, 본교의 교육 기능을 마을축제 운영과 연계하여 축제 참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세대 간 경험과 역할이 전승되는 인력 재생산 구조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둘째, 본교의 기획·연구·행정 지원 역량을 활용하여 마을축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및 실무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이 축제의 주체로서 기획과 실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셋째, 본교와 마을 간의 다년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마을축제의 중·장기적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 넷째, 본교의 조사·연구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의 역사와 생활문화, 공간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마을 고유 문화에 기반한 축제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 다섯째, 본교가 중심이 되어 마을축제의 기획·운영·성과 전반을 기록·아카이빙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제 운영 경험을 지역의 공공 자산으로 축적하고 향후 축제 기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여섯째, 본교 재학생과 지역 청년을 마을축제의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기획·연구·기록·콘텐츠 개발의 협력 주체로 제도화하여, 대학·청년과 마을 간의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고자 함
- 일곱째, 본교가 중개자이자 촉진자로서 홍성군 내 마을축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간 경험과 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군 단위 문화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자 함

미션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마을축제의 지속성 설계

비전

마을을 잊고 경험을 공유하는 홍성군 문화공동체 실현

목표 (3)	전략 (9)
마을축제 운영 인력의 체계적 양성	① 교육 연계형 마을축제 인력 양성 체계화 ② 대학·지역청년 참여 지원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마을축제 운영의 안정성 확보	③ 다년간 협력 지원을 통한 축제 운영 안정화 ④ 대학 기반 기획·행정 지원을 통한 운영 부담 완화
마을축제 운영의 지속성 확립	⑤ 연구·조사 지원을 통한 마을별 축제 정체성 확립 ⑥ 기록·아카이빙 지원을 통한 마을축제의 자산 축적 ⑦ 대학을 매개로 한 마을축제 네트워크 확산

<그림 4-1> 홍성군 마을축제 활성화를 위한 본교의 미션, 비전 및 목표, 전략

2. 전략 및 추진과제

<표 4-1> 홍성군 마을축제 활성화를 위한 본교의 전략체계와 세부사업

목표 (3)	전략 (7)	추진과제(23)
1. 마을축제 운영인력의 체계적 양성	1-1 교육연계형 마을축제 인력 양성 체계화	1. 마을축제 역할 체계(기획·운영·기록·홍보·연계) 정립 2. 전공·비교과 연계 마을축제 참여 교과목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3. 세대별 참여 모델(청년·대학생·중장년·귀농귀촌) 설계 4. 단계별 참여→책임 확장→리더 육성 구조 구축
	1-2 대학·지역청년 참여 지원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축제 참여 학점 인정·장학 연계 제도 운영 2. 학생·청년 기획 콘텐츠의 현장 구현 및 공개 3. 기록·콘텐츠·운영 분야 단기·중기 일자리 연계 4. 지역 정착형 청년 참여 모델 발굴
2. 마을축제 운영의 안정성 확보	2-1 다년간 협력 지원을 통한 축제 운영 안정화	1. 본교-마을 간 다년 협력 협약 체결 및 운영 모델 구축 2. 연중 운영형 축제 준비·환류 구조 설계 3. 과정 중심 평가 체계 개발 및 적용 4. 마을만들기·지역혁신 정책과의 연계 강화
	2-2 대학 기반 기획·행정 지원을	1. 축제 기획·운영·정산 전 과정에 대한 대학 연계 지원

	통한 운영 부담 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마을축제 맞춤형 행정 가이드라인 및 표준 서식 개발 3. 교수·연구원·학생 참여 실무 지원팀 운영 4. 축제 준비 단계별 컨설팅 및 밀착 지원체계 구축
3. 마을축제 운영의 지속성 확립	3-1 연구·조사 지원을 통한 마을별 축제 정체성 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별 역사·생활문화·공간 자산 조사 연구 2. 축제 운영 목표 유형화(공동체 중심형 / 교류·확장형) 3. 주민 합의 기반 축제 방향 설정 워크숍 운영 4. 외부 연계 시 축제 본질 유지를 위한 가이드 마련
	3-2 기록·아카이빙 지원을 통한 마을축제의 자산 축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축제 통합 기록·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기획·운영·평가 전 과정 기록 표준화 3. 사진·영상·구술·운영일지 체계적 수집 4. 기록 기반 축제 개선 및 정책 자료 활용
	3-3 대학을 매개로 한 마을축제 네트워크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성군 마을축제 협의체 구성 및 정례 운영 지원 2. 마을 간 사례 공유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3. 군 단위 공동 기록·홍보·브랜드 사업 기획 4. 순회형 교육·기획·교류 프로그램 운영

3. 차년도 본교와의 협력 방안

1) 결성면 원천마을회 [원천마을 제12회 조롱박축제]

- 본교와의 협력은 원천마을 조롱박 축제가 지향해 온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제의 질적 전환과 여름철 환경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조롱박 터널이라는 고유한 공간 자산을 중심으로, 경관 연출과 소규모 콘텐츠 제공을 결합한 협력 모델이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됨

(1) 조명을 활용한 야간 경관 연출

- 먼저 경관적 요인 측면에서, 본교는 조롱박 터널 조명을 중심으로 한 야간 경관 연출을 지원할 수 있음
- 조롱박 덩굴과 터널 구조를 고려한 간접 조명,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저전력 LED 조명, 에너지 자립 마을의 정체성과 연계한 태양광 기반 조명 장치 등은 마을의 기존 가치와도 부합하는 협력 요소가 될 수 있음
- 이는 폭염을 피해 저녁 시간대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조롱박 터널의 미적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2) 소규모 미디어 연출

- 아울러 미디어 연계 측면에서는, 대규모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아닌, 조롱박 터널 내부 또는 주변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미디어 연출이 적절함
- 예를 들어 조롱박의 성장 과정, 마을의 형성과 에너지 자립 이야기 등을 짧은 영상이나 빛 연출로 구현함으로써, 관람객이 공간을 '지나가는' 경험을 넘어 '머무르며 느끼는' 경험으로 확장할 수 있음
- 이러한 미디어 요소는 축제 당일뿐만 아니라 축제 전후 기간에도 활용 가능하여, 마을 방문 동기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3) 소규모 공연 콘텐츠 제작

- 콘텐츠 제공 측면에서는, 축제의 규모와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소규모·저밀도 공연 콘텐츠 중심의 협력이 바람직함
- 본교의 공연·연극·음악 관련 전공 인력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조롱박 터널 또는 인접 공간에서 짧은 연극, 낭독극, 소규모 음악회 등을 선보이는 방식은 축제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마을의 이야기, 조롱박 축제의 형성 과정, 주민의 일상 등을 소재로 한 짧은 공연은 외부 방문객에게는 마을 이해의 계기가 되고, 주민에게는 자부심을 환기하는 콘텐츠로 작용할 수 있음

(4) 퍼포먼스와 공연 콘텐츠 결합

- 또한 안개 분무(미스트) 퍼포먼스와 공연 콘텐츠를 결합한 연출 역시 협력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음
- 예컨대 여름밤 시간대, 조명이 더해진 조롱박 터널 속에서 미스트가 가동되는 가운데 짧은 음악이나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방식은, 비교적 단순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음
- 이는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5) 종합 및 시사점

- 종합적으로 볼 때, 본교와의 협력은 조롱박 축제를 '확장'시키기보다는, 기존 자산을 재해석하고 전환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함
- 경관 연출과 소규모 콘텐츠 제공을 중심으로 한 협력은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축제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며, 향후 원천마을 조롱박 축제가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형 축제로 유지·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

-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는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경관 자원을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축제로 발전해 왔으나, 기후 조건, 재정 구조, 주민 노동 부담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일 축제 중심의 운영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제약이 존재함
- 이에 본교는 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과 협력 예정인 체류형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상황마을의 경관·공동체 자원을 연계한 1박 2일형 여행·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함으로써, 축제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활용 가능한 체험 콘텐츠로 확장하고자 함

(1) 협력 모델의 기본 구조

- 본 협력 모델은 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의 체류형 여행 인프라, 상황마을의 배롱나무 경관 및 공동체 기반 체험 자원, 본교의 기획·교육·기록 역량을 결합한 공동 운영 체계로 구성됨
- 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은 숙박·캠핑·여행 동선 관리 및 예약 운영을 담당하고, 상황마을은 배롱나무 경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 체험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본교는 전체 프로그램 기획, 콘텐츠 구성, 학생 참여형 운영 및 기록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담당함

(2) 1박 2일 여행 · 체험 프로그램 구성(안)

- 본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 및 워케이션 참여자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 시기뿐 아니라 비축제 기간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류형 구조로 설계함
- 단순 관광 중심이 아닌, 마을 경관과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방문객의 체류 시간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프로그램의 1일차에는 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거점 공간에 집결하여 전체 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상황마을로 이동함
- 이후 배롱나무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한 마을 경관 해설형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롱나무 식재 과정과 마을 형성 배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함
- 이어 배롱나무 묘목 심기 체험을 진행하여, 방문객이 마을 경관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구성함
- 저녁 시간에는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공동 식사를 통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이후 캠핑 또는 체류형 숙박을 통해 마을 인근에서 1박을 진행함
- 프로그램의 2일차에는 아침 공동 식사 후 참여자 유형에 따라 선택형 프로그램을 운영함. 워케이션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자연 환경 속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자연 놀이 및 마을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후 방문 경험을 기록하는 사진·영상·글쓰기 기반의 기록 체험을 진행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함
- 마지막으로 지역 특산물 및 인근 자원과 연계한 간단한 체험을 진행한 후 일정을 마무리함

(3) 공동 운영 방식 및 역할 분담

- 본 협력 사업은 본교, 상황마을, 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이 각자의 역할과 강점을 분담하는 공동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함
- 본교는 체류형 여행·체험 프로그램의 전체 기획과 교육적 요소 설계를 담당하며, 학생 참여형 운영 구조를 통해 체험 보조, 프로그램 기록, 콘텐츠 제작을 수행함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마을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아카이빙을 구축함으로써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함
- 상황마을은 배롱나무 경관 자원과 마을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과 공동 식사, 교류 활동을 주관함. 이를 통해 마을 고유의 정체성과 공동체 운영 방식을 유지하면서 외부 방문객과의 접점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함
- 천수만권역영어조합법인은 숙박 및 캠핑 시설 운영, 여행 동선 관리, 안전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예약·모객 등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 운영을 맡음. 또한 인근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조정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권역 단위 관광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구축함

(4) 종합 및 시사점

- 본 협력 방안은 상황마을 배롱나무축제를 단일 시점의 행사에서 벗어나, 연중 운영 가능한 체류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함으로써 주민 노동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재정 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천수만권역 단위의 여행·체험 네트워크와 연계함으로써 마을 간 자원 공유와 방문객 체류 시간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음
- 아울러 본교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기획·연결·기록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마을과 외부 기관 간 협력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지역 협력의 실질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홍성환경농업마을 [지구를 지키는 농부-발자국 소리 축제]

(1) 가치 기반 축제 콘텐츠의 구조화 및 고도화 협력

- 본교는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이 지향하는 유기농·환경농업의 가치와 '100년 기획' 철학을 기반으로, 「발자국 소리 축제」의 프로그램 구조를 체계화하는 데 협력할 수 있음
- 축제의 철학, 공간 구성, 체험 동선을 교육·문화 콘텐츠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연간 3회 순환형 축제 구조(봄·여름·가을)를 하나의 통합 기획 프레임으로 정교화함으로써, 문당리 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형 학습·체험 모델로 기능하도록 지원함
- 이를 통해 문당리 축제를 '환경농업 가치 확산형 교육 축제 모델'로 정립하고, 타 지역 확산이 가능한 표준 사례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

(2) 환경·생태 기반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 본교는 문당리의 논 생태계, 생물다양성, 농업 노동 과정 등 마을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환경·생태 교육 콘텐츠 개발에 협력할 수 있음
- 특히 유치원·초등 저학년 가족 방문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학교·교육기관 연계가 가능한 모듈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함으로써 문당리의 '교육관 1호 마을' 정체성을 강화함
- 향후 생물다양성 대회, 환경교육 주간, 농촌체험학습 등과 연계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축제와 상설 교육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함

(3) 축제 및 마을 운영 기록화·아카이빙 협력

- 본교는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의 축제 운영 과정, 프로그램 변화, 주민 참여 방식, 공간 활용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하는 기록화 사업에 협력할 수 있음
- 이는 단순한 홍보 기록을 넘어, 문당리 마을 운영 철학과 축제 기획 방식이 축적·전승될 수 있는 연구 자료이자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됨
- 기록 결과물은 기록집, 영상 아카이브, 교육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문당리의 가치와 경험이 외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함

(4) 청년 인력 및 예비 전문인력 참여 모델 구축

- 본교는 문화기획, 예술교육, 환경콘텐츠, 기록·미디어 분야의 예비 전문 인력이 문당

리 축제 및 마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학생 참여는 단기 봉사 형태가 아닌, 기획·운영·기록·교육 보조 등 실질적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마을에는 인력 보완 효과를 제공하고 학생에게는 현장 기반 학습 기회를 제공함
- 이를 통해 문당리는 외부 인력 의존이 아닌 '협력형 인력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본교는 지역 연계 실천 교육의 실질적 성과를 축적할 수 있음

(5) 중·장기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

- 본교와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은 단년도 행사 중심의 협력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단계별 협력 구조를 지향함
- 1단계에서는 축제 및 교육 콘텐츠 구조화와 기록화에 집중하고, 2단계에서는 상설 체험형 장터 및 생활 문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확대하며, 3단계에서는 문당리 모델의 연구·확산 및 정책 제안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협력은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을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 및 가치 중심형 마을 축제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오서산 상담마을 [제3회 오서산상담마을 콩 두부 축제]

- 본교와 상담마을의 협력은 축제의 외형적 확대나 방문객 수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 콩두부 축제가 지닌 음식 중심의 마을 정체성과 주민 주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고령화된 마을 인력 구조 속에서 축제 운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본 협력은 단순 인력 지원이나 행사 보조 차원을 넘어, 음식 메뉴 개발, 조리 공정 개선, 가공식품 개발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한 노동 경감형 협력 모델로 설계함

(1) 음식 메뉴 개발 협력

- 본교는 상담마을 콩두부 축제의 핵심 자원인 '콩'과 기존 음식 구성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축제 운영에 수반되는 주민의 노동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음식 메뉴 개발에 협력함
- 기존 두부, 콩국수 중심의 메뉴 체계를 분석하여 조리 난이도가 높거나 인력 소모가 큰 요소를 점검하고, 사전 준비가 가능하거나 공정이 단순화된 메뉴를 중심으로 신규 음식 콘텐츠를 공동 기획함
- 메뉴 개발 과정에는 본교의 조리·식품 관련 전공 인력 및 학생이 참여하며, 개발된 메뉴는 일회성 도입이 아닌 축제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성은 검증하는 시범 운영 단계를 거침
- 이후 마을 부녀회 및 운영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리 부담이 적고 축제 현장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메뉴만을 선별적으로 축제 공식 메뉴로 반영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은 함께 확보하고자 함

(2) 조리 공정 간소화 및 운영 매뉴얼화 협력

- 상담마을 콩두부 축제는 음식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해 조리 과정에서 높은 노동 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축제 지속성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교는 축제 음식의 조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과도한 인력이 요구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간소화 방안을 도출하는 협력에 참여하고자 함
- 본 협력은 기존 조리 방식의 전면적 변경이 아닌, 마을의 손맛과 조리 관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 축소, 공정 통합, 보조 도구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이를 통해 축제 운영 시 활용 가능한 간이 조리 공정 매뉴얼을 공동 제작하고, 특정 개인의 경험이나 숙련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표준화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령화된 인력 구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축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3) 콩 가공식품 개발 및 비축형 운영 모델 협력

- 축제 당일에 집중되는 조리 노동을 분산하고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교는

상담마을과 협력하여 사전 생산 및 보관이 가능한 콩 가공식품 개발을 추진하고자함

- 이는 축제 당일 현장 조리를 최소화하면서도, 상담마을 콩두부 축제의 음식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임
- 개발 대상은 냉장·냉동 보관이 가능한 반가공 식품, 간단한 재가열 또는 조리만으로 제공 가능한 메뉴, 또는 체험형 활용이 가능한 콩 가공 제품 등으로 설정함
- 이러한 가공식품은 축제 기간 외에도 마을 내부 행사나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 될 수 있어, 축제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마을의 자원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4) 대학-마을 협력 운영 방식

- 본교와 상담마을의 협력은 대학이 주도하거나 축제 운영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주민을 축제의 주체로 명확히 설정한 가운데 대학이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제공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이에 따라 본교 학생 및 교원의 참여는 단순 현장 인력 지원이 아닌, 사전 조사, 기획, 시범 적용 등 축제 운영 구조 개선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공동 설계의 형태로 이루어짐
- 모든 협력 과정은 마을 내부의 합의와 운영 원칙을 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축제의 외형적 확대나 상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별 검토를 거쳐 진행함
- 이를 통해 마을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이 마을의 실제 필요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5) 기대효과

- 본교와의 협력을 통해 상담마을 콩두부 축제는 고령화된 인력 구조 속에서도 축제 운영에 따른 주민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음식 메뉴 개발과 조리 공정 간소화, 가공식품 도입을 통해 축제 준비와 운영 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이는 축제의 지속 가능성 to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아울러 본 협력은 소규모 마을축제가 규모 확대 중심의 성장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적정 규모 유지와 정체성 보존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로서 정책적·연구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대학과 마을이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모델로 기능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마을축제와의 연계 가능성 또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꽃무릇마을회 [제5회 꽃무릇축제]

- 본교와 꽃무릇마을회의 협력은 꽃무릇 축제가 지닌 자연 경관 중심의 축제 정체성과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 운영 구조를 핵심 자산으로 삼아 추진함
- 특히 축제 기간에 한정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평상시에도 주민 참여형 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둠
- 이를 위해 본교는 공연·영상·공간 연출 및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마을 축제 인프라를 보완하고, 꽃무릇마을회는 지역 자원과 주민 참여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함
- 협력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상설 무대 제작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이머시브 장소 이동형 공연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함

(1) 주민참여형 소규모 무대 제작 및 상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본교는 꽃무릇마을 축제 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활용 가능한 소규모 무대를 제작하여 마을에 제공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구축함
- 해당 무대는 축제 기간 중 개막 행사, 공연, 주민 발표 프로그램 등에 활용되며, 축제 종료 이후에는 마을 회의, 소규모 문화행사, 주민 교육 및 공동체 활동 등 평상시 프로그램으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무대는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소재와 모듈형 구조로 설계하여 하천변, 논 경관 인접 공간, 마을 공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제작 과정에는 본교 공연·무대 관련 전공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확보하고, 마을은 축제 운영을 위한 장기적 문화 인프라를 축적하는 구조를 형성함

- 또한 청년회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주민 발표, 마을 이야기 공유, 소규모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무대가 단순한 공연 시설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일상적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함

(2) 자연경관 기반 이머시브 장소 이동형 공연 제작

- 본교는 꽃무릇마을이 보유한 자연 및 공간 자원을 무대화한 이머시브 형태의 장소 이동형 공연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꽃무릇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자 함
- 본 공연은 관객이 고정된 좌석에서 관람하는 방식이 아니라, 꽃무릇 군락지, 하천변, 논 경관, 숲길 등 마을의 주요 공간을 이동하며 이야기를 체험하는 구조로 구성하고자 함
- 공연의 서사는 꽃무릇의 생태적 특성과 꽃말이 지닌 상징성을 바탕으로 구성하고, 배우의 연기, 사운드, 조명, 간이 영상 요소 등을 공간 특성에 맞게 결합하여 현장 몰입도를 강화함
- 이 과정에서 일부 마을 주민이 공연에 참여하거나 공간 연출에 협력함으로써, 축제가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와 결합된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되도록 함
- 해당 공연은 축제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이후 기록 영상 및 사진 아카이브로 제작하여 전시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꽃무릇마을 축제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임

(3) 기대효과

- 본교와 꽃무릇마을회의 협력은 마을 축제를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문화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소규모 상설 무대 제작을 통해 축제 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 참여형 문화 활동이 가능해지며, 이는 마을 공동체의 문화 접근성과 활동 지속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자연경관을 활용한 이머시브 장소 이동형 공연 도입은 꽃무릇 축제를 단순 경관 감상형 행사에서 체험 중심 문화예술 축제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이를 통해 방문객의 체류 경험이 심화되고, 축제 콘텐츠의 차별화 및 브랜드 이미지

지 제고가 가능해질 것임

- 아울러 본교의 전문 인력과 학생 참여를 통한 기획·제작 과정은 대학의 지역 연계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축제 기록화 및 콘텐츠 축적을 통해 향후 홍보와 추가 사업으로 확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종합 및 시사점

- 본 사례는 자연 경관과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라 하더라도, 문화예술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청년 중심의 공동체 운영 구조와 대학의 전문성이 결합될 경우, 마을 내부의 자발성과 외부 역량이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음
- 또한 소규모 무대와 장소 이동형 공연과 같은 경량화된 문화 콘텐츠는 과도한 예산이나 대규모 시설 없이도 축제의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타 농촌 마을 축제에도 적용 가능한 확산 모델로 평가됨
- 나아가 대학-마을 협력이 단순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문화 자산을 함께 축적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를 지님

6) 홍성읍 오관 2리 경노당 [제4회 홍고통 페스티벌]

- 본교와 오관2리의 협력은 신규 축제 콘텐츠의 일회성 제공보다는, 이미 형성된 주민 중심 문화예술 활동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속·확장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고령화된 원도심 마을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축제는 '이벤트'가 아닌 '돌봄과 문화 향유의 과정'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1) 시니어 중심 문화예술교육 기반 돌봄형 축제 확장 모델

- 이에 본교는 조양미술관, 나빌레라, 집단지성 등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홍성읍 오관2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미술·예술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본교 재학생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협력 모델을 제안함

- 해당 프로그램은 고령 주민의 신체·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낮 시간대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회화·드로잉·공예·기초 예술체험 등 접근성이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함
-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예술 활동의 참여자이자 표현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세대 간 상호 돌봄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

- 본교 재학생들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교육 보조·기록·전시 연계 기획 등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상호 돌봄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협력 구조를 형성 함
- 이는 학생들에게는 지역 기반 문화예술 실천 경험을, 어르신들에게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짐

(4) 프로그램과 축제 운영의 상호 연계

- 프로그램 결과물은 홍고통 행복마을축제와 연계하여 전시·공유함으로써, 축제가 교육의 종착점이자 공동체 성과를 가시화하는 장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함
- 이를 통해 축제는 외부 방문객 중심의 소비형 행사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과 시간이 축적되는 문화적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됨

(5) 종합 및 시사점

- 장기적으로는 본교가 프로그램 기획·운영·기록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주체로서 기능하며, 마을 내 문화 담당 인력의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를 지향함
- 이는 외부 지원금 의존도를 완화하고, 원도심 고령 마을에서도 실현 가능한 지속 가능한 돌봄형 문화예술 축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7) 대천마을회 [은하봉 들돌축제]

- 본교와 대천마을의 협력은 대천마을 들돌축제가 지닌 공동체 기억과 생활문화적 가

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의 실제 공간을 공연 무대로 전환하는 미디어 파사드 기반 콘텐츠 제작을 핵심으로 추진함

- 이는 특정 공연장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자체를 서사의 무대로 활용함으로써 대천마을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공간의 기능과 상징성에 맞는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개발

- 본교는 공연·영상·미디어 분야의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대천마을의 주요 공간(마을 입구, 마을회관, 골목길, 들돌 공간, 마당 등)을 분석하고 각 공간의 기능과 상징성에 맞는 미디어 파사드 영상 및 퍼포먼스 콘텐츠를 기획·제작함
-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의 구술 기억, 놀이 경험, 들돌축제의 역사적 의미를 콘텐츠의 핵심 서사 자원으로 활용함
- 공연 콘텐츠는 공간 이동형 구조로 구성하여 관객이 마을을 따라 이동하며 대천마을의 이야기를 체험하도록 설계함
- 들돌 들기와 농경사회 놀이, 공동체의 몸 기억은 영상 이미지와 음향으로 구현하고, 주민 참여는 상징적 동작이나 현존의 형태로 최소화하여 고령화된 마을 여건을 고려함

(2) 본교 재학생과 마을간 역할 분담

- 본교 소속 학생과 청년 예술 인력은 미디어 파사드 영상 제작, 퍼포먼스 연출, 기술 운영 및 관객 동선 안내를 담당하며, 마을주민은 이야기 제공자이자 공간의 주체로 참여한다함
- 이를 통해 주민이 공연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존중받는 협력 구조를 유지함
- 본 협력은 상주형 개입이나 장기 체류 방식이 아닌, 축제 전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단기 제작·운영 체계를 원칙으로 하여 마을의 행정·생활 부담을 최소화함
- 동시에 반복 가능한 콘텐츠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에도 마을 여건에 맞추어 조정·재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

(4) 공연을 통한 마을 정체성 공유

- 본 미디어 파사드 공연 콘텐츠는 대천마을을 '행사 장소'가 아닌 '이야기를 품은 공

간'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가족 단위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고 마을에 대한 이해와 체류 경험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이는 축제의 외형적 규모 확대가 아닌, 의미 중심의 교류 확장을 지향하는 대천마을 축제 철학과도 부합함

(5) 종합 및 시사점

- 종합적으로 본교와의 협력은 대학의 전문 인력과 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대천마을의 마을문화 자산을 현대적 매체로 재해석하는 문화 실험의 성격을 가지며, 주민 주도 축제의 본질을 유지한 채 다음 세대와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 기능할 것임

8) 원촌마을회 [원촌마을 어울림 한마당]

- 본교와 원촌마을 간 협력은 축제 콘텐츠 제작이나 행사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원촌마을이 지닌 지형적·역사적·사회문화적 서사를 체계적으로 발굴·분석·기록하는 학술 연구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함
- 원촌마을은 과거 구장터로 기능하였던 역사성과 해안·갯벌 기반 생활사의 기억, 그리고 '원(院)'이라는 지명이 내포한 공공적 성격 등 다층적인 역사 자원을 보유한 마을로, 이러한 자산은 도시재생사업과 마을축제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정체성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협력은 원촌마을의 역사 자원과 축적된 공동체 경험을 일회성 스토리나 행사 소재로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술적 연구 대상이자 지역학적 자산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 연구 내용

- 첫째, 원촌마을 '구장터' 공간의 역사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 과거 장시(場市)로서 원촌마을이 수행해 온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간 교류

와 관계 형성의 중심지로서 담당해 온 사회적 역할을 분석하고, 이러한 공간 구조가 현재 마을축제의 개방성과 주민 참여 방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함. 아울러 신대(새터) 마을과의 대비를 통해 생활권 이동과 마을 구조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함

- 둘째, 해안 및 갯벌을 기반으로 한 원촌마을의 생활사와 공간 기억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함. 방조제 축조 이전 해안 인접 마을로서 형성되었던 생업 구조, 이동 경로, 생활 리듬을 구술사 중심으로 조사하고, 지형 변화가 마을의 정체성 인식과 공동체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
- 셋째, '원촌(院村)'이라는 지명에 내재된 공공성과 제도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관아, 역원, 사택 등 공적 시설 존재 가능성에 대한 문헌 조사와 구전 서사 분석을 병행하여, 원촌마을이 단순한 농어촌 취락을 넘어 일정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던 공간이었음을 학술적으로 해석함
- 넷째, 도시재생 과정에서 마을축제가 수행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사례 연구를 추진함.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간 합의와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장치로 작동해 온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축제를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아닌 과정 관리 수단으로 해석함

(2) 협력 추진 방식

- 본교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한 「원촌마을 역사·서사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원촌마을 이장 및 개발위원회, 마을 주민을 공동 연구 주체로 참여시키는 협력 구조를 구축함
- 연구 과정에서는 마을 주민을 단순한 조사 대상이 아닌, 지역 지식의 보유자이자 연구 파트너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함
- 연구 방법으로는 구술사, 생활사 조사, 현장 기록, 공간 분석 등을 병행하며, 조사 과정 중간 단계마다 마을 설명회 및 환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보완함

(3) 연구 성과의 기록화 및 활용

- 연구 성과는 내부 보고에 그치지 않고 학술 논문, 연구 총서, 마을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축적함. 특히 텍스트, 지도, 사진, 음성 기록을 포함한 아카이브 자료는 향후 장사의 기념관 및 마을 전시 공간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함

- 이를 통해 원촌마을의 역사와 서사는 개인 기억의 차원을 넘어 공적 기록으로 전환되며, 도시재생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문화·연구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4) 교육 연계 및 중장기 협력

- 본교는 지역학, 문화기획, 공연예술, 기록학 관련 교육과정과 본 연구를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연구·교육 모델을 구축함. 학생 참여는 행사 운영 인력이 아닌 연구 보조 및 기록 활동 중심으로 제한하여, 마을의 일상과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함
- 아울러 본 협력은 도시재생사업 기간(2024~2027)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마을 연구 파트너십으로 확장하는 것을 지향함. 이를 통해 원촌마을은 본교의 대표적인 지역학 연구 거점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기대 효과

- 본 협력을 통해 원촌마을은 축제와 도시재생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억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지역 자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본교는 단기 성과 중심의 협력을 넘어 심층 지역 연구 기반의 지속 가능한 대학-지역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나아가 원촌마을 사례는 향후 군 단위 마을축제 정책 및 도시재생 연계 문화사업 설계에 참고 가능한 선도 사례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됨

9) 거북이마당놀이보존회 [구항 거북이축제]

(1) 청년 인적 자원 유입을 통한 전승 기반 강화 협력

- 거북이 마당놀이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승 인력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적 자원

단절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체계적 참여 구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본교는 지역 대학으로서 교육·연구·현장 실습 기능을 활용하여, 전통 연희 전승을 지원하는 청년 인적 자원 유입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음

- 첫째, 전통 연희 보조 인력 및 공연 참여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함. 거북이 마당놀이의 주요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청년 연희 인력을 대상으로, 기초 장단·동작·의례 구조를 학습하는 단계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령 전승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는 '주요 기능 전승자-청년 보조 인력'의 이원적 구조를 형성하여, 단기적 인력 공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둘째, 기획·운영 스태프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확대가 요구됨. 공연 기획, 무대 운영, 기록 및 홍보 등 축제 전반의 실무 영역에 대학생 및 청년 인력을 참여시켜, 전통 연희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습형 교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마을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은 지역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현장 학습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셋째, 중·장기적 청년 참여 구조 정착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단발성 참여를 넘어, 정규 교과·비교과 과정,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지역연계 프로젝트 등과 연계함으로써 매년 일정 규모의 청년 인력이 순환 참여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이는 전승 인력의 세대 교체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2) 전통 원형을 존중한 현대적 공연 콘텐츠 제작 협력

- 거북이 마당놀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통 원형의 보존과 더불어, 현대 관객과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로의 확장이 필요함
- 이에 본교는 '원형 보존'과 '현대적 재해석'을 분리 운영하는 투 트랙 전략을 중심으로 협력 모델을 제안할 수 있음
- 첫째, 원형 보존형 공연의 체계화 및 기록화 지원이 필요함. 기존 어르신 전승자들이 수행해 온 거북이 마당놀이의 구조, 대본, 장단, 의례 절차를 중심으로 원형 공연을 정리·고정화하고, 이를 영상·문서·아카이빙 자료로 체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전통의 기준점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음. 이는 향후 창작 및 재해석 작업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둘째, 청년 참여형 현대적 재해석 공연 콘텐츠 제작을 추진할 수 있음. 원형 공연을

직접적으로 변형하기보다는, 거북이 마당놀이의 상징성, 서사 구조, 공동체적 의미를 모티프로 삼아 현대적 연출, 무대 미학, 미디어 요소 등을 결합한 창작 공연을 별도로 제작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전통 연희자는 자문 및 감수 역할로 참여하여, 전통 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셋째, 축제 내 이중 공연 구조 도입을 통한 관객층 확장이 가능함. 구항 거북이 축제 내에서 낮에는 원형 보존 공연을, 저녁 또는 별도 무대에서는 현대적 재해석 공연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전통문화 향유층과 신규 관객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이는 축제의 문화적 깊이와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

(3) 종합 및 시사점

- 이와 같은 협력 방안은 거북이 마당놀이의 전승 위기를 청년 참여 기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교육·연구·창작이 결합된 협력 모델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청년 인적 자원의 유입은 단순한 인력 보충을 넘어, 전통 연희의 지속 가능성과 담보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으며, 현대적 공연 콘텐츠 제작은 지역 축제를 살아 있는 문화 실험의 장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본 협력 모델은 전통문화 보존과 청년 교육, 지역축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례로서, 향후 지역혁신 및 RISE 사업, 문화유산 기반 지역협력 모델로 확장 가능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됨

10) 이더러문화보존회 [제11회 이더러우물축제]

(1) 마을 고유 서사 기반 축제 콘텐츠 공동 개발

- 본교는 이더러 우물축제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마을의 역사·전통·서사를 예술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데 협력할 수 있음

- 특히 백제시대부터 이어진 이더러 샘의 역사성, 우물제(용왕제), 별주부전 서사 등 마을 고유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공연·영상·미디어아트 등 융합형 콘텐츠를 공동 개발함으로써,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표현 방식을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이는 외부 공연 위주의 축제 운영에서 벗어나, 마을 내부 자산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고도화를 지원하는 협력 모델이 될 것임

(2) 연중 문화활동과 축제의 연계 구조 강화

- 본교는 '반교 할매 화가들'과 같은 마을 내 자발적 문화활동을 기록·연구·전시로 확장하는 협력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음
- 일상적 문화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축제 시기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축제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연중 문화활동의 결과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마을축제가 주민 문화복지와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3) 마을축제 기록·아카이빙 및 연구 협력

- 본교는 이더러 우물축제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분석하는 연구 협력에 참여할 수 있음
- 축제 기획 의도, 운영 방식, 주민 참여 구조, 세대 간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을 아카이빙 함으로써, 마을축제의 경험과 철학이 다음 세대로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는 향후 홍성군 마을축제 정책 수립 및 군 단위 축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4) 예비 문화기획자 및 예술 전공 인력의 현장 연계

- 본교는 공연·영상·문화기획 전공 학생들이 이더러 우물축제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학생들은 마을축제의 실제 기획·제작·운영 과정을 경험하고, 마을은 전문 인력의 지원을 통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 이는 마을 리더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기반 문화인력 양성이라는

교육적 성과를 창출하는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가 될 것임

(5) 군 단위 마을축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범 협력

- 이더러 우물축제를 군 단위 마을축제 네트워크의 대표 사례로 설정하고, 본교가 기획·연구 파트너로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개별 마을축제를 연결하는 공동 아카이브, 통합 홍보 콘텐츠, 공동 연구 보고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홍성군 전체의 마을축제 문화 지형을 가시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는 진안군 사례와 유사한 발전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현하는 실험적 협력으로서 의미를 가짐

(6) 중간 지원 기능 보완을 위한 협력 역할 수행

- 본교는 마을과 행정 사이의 중간 지원 주체로서, 축제 기획 자문, 콘텐츠 구성 지원, 기록 및 성과 정리 등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이는 제도 변화로 약화된 중간 조직의 공백을 보완하고, 마을 리더의 소진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

11) 홍북읍주민자치지역발전계획단[미한시대 사람들 축제 재현 석택리의 비밀]

- 본교는 「석택리의 비밀」 축제가 지닌 역사·문화적 잠재력과 주민자치 기반 실험성을 토대로, 축제의 콘텐츠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구축을 지원하는 협력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역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비 문화기획자 및 청년 예술인의 현장 실습·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 개발 협력

- 첫째, 축제 기획 및 콘텐츠 개발 협력이 가능함. 본교는 공연·영상·연극·미디어아트

등 전공 역량을 활용하여, 마한 시대 석택리 유적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기반 공연, 참여형 퍼포먼스, 공간 연출 콘텐츠를 공동 개발할 수 있음.

- 이는 기존의 상상적 재현 방식에 학술적 해석과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함으로써, 축제의 서사 완성도와 관람·체험의 몰입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 디지털 기반 역사문화 콘텐츠 제작 협력

- 둘째, 디지털 기반 역사문화 콘텐츠 제작 협력이 가능함. 실물 유적이 복토되어 현장성이 제한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교는 VR·AR·미디어 파사드·영상 아카이빙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복원 콘텐츠 및 전시형 콘텐츠 제작에 참여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석택리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시각화하고, 축제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지속형 문화자산을 축적할 수 있음

(3) 청년 인력 참여 및 교육 연계 협력

- 셋째, 청년 인력 참여 및 교육 연계 협력이 가능함. 본교 재학생 및 청년 예술인을 축제 기획·운영·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를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과 연계함으로써 실천적 교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아울러 장학금 또는 창작 지원 형태의 인센티브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기여와 청년 인재 양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4) 아동·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 넷째, 아동·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이 가능함. 축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공연형 수업 등을 개발하여 지역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거주 공간을 고대사와 연결된 역사적 장소로 인식하도록 지원 할 수 있음. 이는 지역 정체성 형성과 장기적 문화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축제 운영 기록화 및 연구 협력

- 다섯째, 축제 운영 기록화 및 연구 협력이 가능함. 본교는 축제 전반의 기획 과정,

운영 성과, 주민 참여 구조를 체계적으로 기록·분석하여 아카이브 및 연구 성과물로 축적할 수 있음

- 이는 「석택리의 비밀」 축제를 단발성 행사에서 벗어나, 주민자치 기반 지역문화 실 힘의 모범 사례로 정리·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6) 중·장기 확장 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

- 여섯째, 중·장기 확장 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이 가능함. 본교는 계획단과의 공동 연 구 및 컨설팅을 통해, 홍북읍 단위를 넘어 홍성군 및 충청남도 차원의 역사문화축 제로 확장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행정, 학술, 문화예술 주체가 연계된 복합 협력 구조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음

12) 천수만권역 영어 조합법인 [놀궁리 해상공원 축제]

- 본교와의 협력은 궁리항이 지닌 해안선, 석양, 항구 풍경, 해상공원 등 자연경관을 핵심 자산으로 삼아, 단발성 축제를 넘어 체류를 유도하는 예술·여행 복합 프로그램 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이는 기존 마을축제가 지닌 일회성 소비 구조를 극복하고, 궁리항을 '머무는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임

(1) 궁리항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예술 콘텐츠 제작

- 궁리항 자연경관을 활용한 예술 콘텐츠 운영이 핵심 협력 분야로 제시될 수 있음. 본교 공연·영상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석양 시간대의 해변·항구·해상공원을 무대로 한 소규모 공연, 환경·바다 서사를 반영한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및 영상 상영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궁리항의 고요함과 자연성을 예술적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이는 대규모 인프라 없이도 구현 가능한 콘텐츠로, 해상공원의 제도적 제약을 우회

하는 실현 가능성이 높음

(2) 워케이션 인구 및 가족 방문객을 위한 1박2일 체류형 프로그램 구성

- 워케이션 인구 및 가족 방문객을 위한 1박2일 체류형 프로그램 구성을 운영할 수 있음
- 본교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마을은 숙박·식사·공간 제공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외부 방문객이 궁리항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할 수 있음
- 워케이션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낮 시간대의 작업·휴식 환경과 저녁 시간대의 예술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해양 환경 체험, 전통 의례 스토리텔링, 어린이 참여형 예술 활동 등을 포함한 일정 구성이 가능함

(3)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 체험 중심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마을 참여 확대가 제시될 수 있음
- 풍어제 전통과 어촌 문화를 기반으로 한 간단한 제의 체험, 바다와 항구를 주제로 한 기록·영상·그림 활동, 해질녘 소원 의식 등은 고령의 마을 주민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설계될 수 있음
- 본교 학생들은 기획·운영·기록을 담당하고, 주민들은 이야기 제공자이자 공간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협력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4) 종합 및 시사점

- 이러한 협력 모델은 궁리항을 단순한 축제 개최지가 아닌, 자연·예술·체험·체류가 결합된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됨
- 나아가 연 1회 축제를 넘어 계절별·주말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경우, 워케이션 인구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반복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천수만권역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 결성면 마을학교 운영위원회 [제2회 꽃보다 농부축제]

- 결성면 마을축제 및 마을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협력 방향은, 본교의 교육·연구·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결성에서만 가능한 교육 경험”을 구현하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하는 데 있음
- 이는 단순한 축제 참여나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결성면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교육적 가치로 재구성함으로써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전통문화 기반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 우선, 결성농요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연극·상황극·체험형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본교와 공동 개발함
- 본 프로그램은 결성농요의 노동요적 성격과 농경 문화를 스토리텔링 요소로 재구성하여, 초등학생들이 직접 역할을 맡아 참여하는 연극놀이 및 체험형 공연 형식으로 운영됨
-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단순 관람을 넘어, 몸으로 익히고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2) 마을 전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 또한 결성향교, 마을 골목, 옛 생활 공간 등 마을 전체를 학습 공간으로 확장한 역할극·미션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 본교는 교육 설계와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대학생 및 청년 예술인을 교육 퍼실리테이터로 참여시켜, 아동들이 ‘하루 동안 결성의 아이가 되어 살아보는’ 몰입형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기존 농촌체험이나 교과 중심 체험과 차별화되는 결성면 고유의 교육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음

(3)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더불어 본교와 외부 예술가가 협력하여 전문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함

- 연극, 음악, 움직임, 미디어 등 복합 장르를 활용한 단기·중기 교육 과정으로 구성해
되, 주말형·방학형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타지역 초등학생과 가족 단위 참여가 가
능하도록 함
-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발성 체험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 운영되는 구조를 지향하
며, 결성면 방문의 명확한 동기를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4) 교육 운영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 본 협력 모델은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결성면을 알리고, 타지역 초등학생 및 가족
의 방문을 유도하는 동시에, 결성초등학교의 교육 환경과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함
께 노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나아가 본교 학생과 청년 예술인의 참여를 통해 교육 운영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고, 향후 청년 유입 및 지역 정착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5) 종합 및 시사점

- 종합적으로 본교와의 협력은 결성면 마을축제를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교육·문
화·체험·방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결성에서만 가능한 교육”이라는 메시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것임